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 신앙과 삶

03 + 04  
MAR + APR  
2020 vol.5

특집

## 청년과 기독교 세계관

사람 사이 청년과 과학자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양승훈 교수

청년, 삶을 고민하다 기독교 세계관적 신앙이 우선되어야 한다

문화로 세상 보기 세속화 시대에 예술을 한다는 것



ISSN 2671-8731

# Contents

MARCH + APRIL · 2020

## 시선

기독교 세계관과 청년의 이상주의 | 손봉호 02

## 편집장의 말

청년이 소망입니다 | 신국원 04

## 특집

### 청년과 기독교 세계관

청년아, 침묵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외치라 | 이상갑 06

‘고엘 뱅크’, 그리스도의 긍휼과 애통이  
청년들의 희년이 되어 | 김정원 08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가, 세상을 바꾸다! | 김재구 10

캠퍼스 예배로 대학문화를 변화시킨다! | 주선태 12

캠퍼스 선교, 대학교회 그리고 깊은 돌봄 | 박동열 14

## 사람 사이

청년과 과학자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양승훈 교수 16

## 섬김의 자리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함께 하는 여정 | 박문식 20



2020. 3+4월호 | 제4호(통권 220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청년, 삶을 고민하다

|                              |    |
|------------------------------|----|
| 청년 시론                        |    |
| 기독교 세계관적 신앙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경건  | 22 |
| 청년은 왜 환상(visions)을 볼까?   양정아 | 24 |
| 청년, 일터 이야기                   |    |
| 창조의 삶을 반영해 내는 오늘   박상희       | 26 |
| 청년, 삶 이야기                    |    |
| 순교자 무덤가에 서서   오민용            | 28 |

## 문화로 세상 보기

|                               |    |
|-------------------------------|----|
| 영화를 보다                        |    |
| 청년을 위한 어떤 인생 세계관 강의   추태화     | 30 |
| 미술을 보다                        |    |
| 세속화 시대에 예술을 한다는 것   서성록       | 32 |
| 책을 보다                         |    |
| 복음의 능력을 다시 찾게 하는 반성과 희망   김선일 | 34 |
| 그리스도인을 위한 서양철학 이야기   김 욱      | 36 |
| 묵상하는 기적   정경식                 | 38 |
| <기독교적 사회론>에 대하여   황영철         | 40 |

## 교회 路

|                           |    |
|---------------------------|----|
| 삼일교회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 소개   유희성 | 42 |
| 수료 소감문   하나래              | 43 |

## 소식

|            |    |
|------------|----|
| 사무국 / 관련기관 | 44 |
|------------|----|



# 기독교 세계관과 청년의 이상주의

손봉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20대에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면 바보고, 40대에도 마르크스주의자면 바보다.”란 말이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사유재산 제도가 유발하는 계급차별을 제거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20대 청년의 이상주의적 성향과 부합하는 반면, 세상 경험을 좀 해 본 40대의 현실주의적 경향과는 맞지 않는 점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보다 훨씬 더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종, 성, 재산, 지식, 계층 등에 따른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등 이웃에게 해가 되는 어떤 행위도 금지할 뿐 아니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십 리를 동행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면서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검손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베버(Max Weber)는 이런 이상적인 윤리는 현실정치에 전혀 적용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렇게 이상적이고 비현

실적인 명령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전제하는 세계관이다.

마르크스주의가 이상주의적이란 이유로 20대가 매력을 느낀다면 그보다 훨씬 더 이상적인 기독교 세계관도 다른 연령대보다 20대가 더 쉽게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미국이나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목회자들보다는 기독교 지식인들이 주도하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다소 이론적이고 성경의 순수한 가르침에 충실하려는 분들만 이 운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바로 비슷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한다. 지식인들은 아무래도 목회자들에 비해서 이론적이고 구체적인 현실과 직접적으로 적게 부딪치기 때문에 좀 더 이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 가운데 대학생이 많은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원생들은 현실주의적이 되어버린 40대에 속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이론적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만 없어지면 사람이 천사가 될 것이란 비현실적인 인간관 때문에 실패했

다. 혁명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천사가 되지 않으니까 천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제하다가 독재만 양산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마르크스주의 보다 훨씬 더 이상적이지만 인간과 세상의 사실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에 근거해 있다. 인간은 범죄하여 이기적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모두가 동등한 기본권을 부여받은 고귀한 존재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마르크스주의가 추구한 이상, 즉 정의와 평등 사상이야말로 바로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제공한 것이다. 인간은 비록 죄인이고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지상천국을 이룩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철저히 이타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의 고통을 줄여주는 고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기독교 세계관은 철저히 이상적이지만 사실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제로 인간의 기본권, 평등, 정의 등의 소중한 이상을 보급하고 증진하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했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은 청년들에게 얼마든지 매력적이 될 수 있다. 그들에게 꿈과 이상을 심어줄 수 있고 삶의 고상하고 참다운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도 여기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잘못된 현실과 타협하여 세속적인 성공과 이기적인 행복을 지나치게 강조하므로 청년들이 추구할 가치가 있는 꿈과 이상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이다. 청년들을 교회에 붙들어 두기 위하여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의 만족에 도취하는 세상의 청년문화에 적응하고 복음성가만 끝없이 불러대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청년문화의 주류가 되어 있다. 사회와 교회의 부정에 대한 비판 정신도, 타락한 문화에 대한 비판 정신도 약해지고 오염된 자연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

는다. 그런 문화에서 과연 청년들이 꿈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겠는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타락은 주위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다. 오늘날 교회의 타락도 비슷하다. 세상과 영합하고 현실주의적이 되면 교회는 타락한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상을 추구해야 하고, 그럴 때만 청년들은 거기서 꿈을 꿀 수 있다.

물론 오늘날의 사회, 특히 한국의 현실이 청년들로 하여금 꿈과 이상을 논할 여유를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고 사회가 너무 밀도 높게 조직되어 비비고 들어 갈 틈이 없다. 취업도, 결혼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을 당면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성세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가난한 마을에도 아이들은 장난을 치고 난민촌에서도 젊은이들은 연애한다. 아무리 현실이 각박해도 청년들은 청년다워야 정상이지 40대처럼 현실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청년은 꿈을 꾸고 이상을 설계하도록 하나님께서 설정하셨다. 이상이 없는 청년들은 세상을 이끌 수도, 바꿀 수도 없다.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지극히 이상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꿈을 꾸기 바란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기아대학 이사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 청년이 소망입니다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우상숭배와 도덕적 부패로 패망하고 바벨론에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살아난 것은 에스더와 다니엘 같은 청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믿음과 단호한 결단을 통해 전 시대의 불행한 유산을 견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신앙의 젊은이들이 있어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사회와 특히 한국교회의 소망은 청년입니다. 그들의 안목과 꿈이 성경과 역사적 기독교의 비전을 이어갈 수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시선>은 청년들이 기독교 세계관의 ‘이상주의’에 붙잡히길 소망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지난 40년 대학과 대학원생들에게 영감을 주었음에 지금도 현실에 매몰된 청년을 깨워 다시 꿈과 이상을 품게 해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합니다. 아울러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여 세상과 다른 이상과 비전을 추구할 때 그 일이 가능함도 일깨워줍니다.

이상갑 목사님의 글은 대학가 청년들에게서 시작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떠올리게 합니다. 거짓과 미혹의 소리가 교회에까지 파고들어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오늘의 상황 속에 청년들을 힘껏 격려주고 싶은 목회자의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작은 공동체인 서향교회가 운영하는 ‘고엘 뱅크’는 현대판 롯기입니다. 친족의 빛을 대신 갇아 잃어버린 회망을 찾아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취업, 결혼, 출산을 포

기하는 청년들에게 소망을 품게 돕는 일에 꼭 큰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도 일깨워줍니다. 벌써 4기를 모집 중인 크리스천 스타트업 스쿨 역시 기업의 현장에서 젊은이들을 제자로 훈련시키는 실천적 모델로 멘토링을 넘어 커뮤니티로 발돋움 중입니다.

학원 사역이 약화되고 있는 지금 매우 고무적인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진주 경상대학교의 캠퍼스 수요일에는 매년 3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을 수련회로 불러모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0년을 헌신한 주전대 교수님과 선배들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서울대 대학교회입니다. 바로 실행위원장인 박동열 교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학부, 대학원, 중국어와 국제예배로 확장하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온 귀한 사역 보고서입니다.

<사람 사이> 인터뷰의 양승훈 교수님은 우리 공동체의 초창기 멤버로 대학원생 시절부터 그 누구보다 앞서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특히 기독교대학철립동역회와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을 설립하고 이끌어 오셨지요. 교수님의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단체의 역사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청년들에 대한 비전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섬김의 자리>의 박문식 교수님 역시 대학원생 때부터 삼십년을 여러 모양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이제는 유재봉 교수님을 이어서 기독교 문학회장으로 더욱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건 형제는 우리의 운동을 청년의 입장에서 돌아보길 당부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수한 믿음에 굳게 서서 엄격한 학문성과 넓은 포용력을 갖추어 진정 청년들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 달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문화 사역을 해온 양정아 자매의 환상을 보는 청년의 비전과 학부 시절부터 교육에 사명을 붙들고 달려온 박상희 자매, 학문연구회의 총무로 섬긴 오민용 형제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씨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태화 교수님은 올해 아카데미상 여러 부문의 후보로 올랐던 <포드 vs. 페라리>에서 두 개의 경쟁적 인생관과 세계관 이야기를 읽어 내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서성록 교수님께서서는 예술계를 휩쓰는 세속주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길은 일러주십니다. 특히 청년 작가들에게 현실에 굴하지 말고 성경적 진리를 붙들고 야성 있게 싸우라는 말씀으로 격려하셨습니다.

<서평>에서는 김선일 교수님이 현대인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왜 복음은?>을 소개합니다. 김옥 형제는 기독교 세계관과 선교적 안목에서 서양철학사를 읽어내는 <서양철학 이야기>를 다뤘고요. 정경식 형제의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묵상>은 저자 김기현 목사님이 자신을 삶을 통해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책이라 했습니다. <기독교적 사회론>은 도이어베르트의 짧은 책을 황영철 목사님이 소개합니다. 기독교철학과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한 원천인 저자의 강연 모음으로 간략하지만 그의 학문적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로>에선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다른 영성과 지성, 그리고 실용성을 갖춘 가정을 세우는 훈련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삼일교회 결혼예비학교가

소개됩니다.

이번 호는 이상적 비전이 청년들의 안목이 되어야 할 이유에서 시작하여 교회와 학교, 그리고 여러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펼쳐온 리더들이 청년들을 격려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꾸려보았습니다. 늘 귀한 글들로 섬겨주신 필진과 애써 편집하고 공들여 교정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편집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시대의 아픔을 품고 에스더와 다니엘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청년들에게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FAITH & LIFE**



 글쓴이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한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캐나다 기독교 학문연구소, 네델란드 자유대학교(Ph.D)에서 공부했다. <신앙과 삶> 편집장과 삼일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

# 청년아, 침묵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외치라

이상갑 (산본교회 담임목사)



현재 한국 사회는 ‘거짓 뉴스 전성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에는 술한 거짓 뉴스가 수시로 올라온다. 문제는 분별력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생각하는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느낌이다. 청년들과 성도들이 참과 거짓 사이에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특정 인물을 추종하면서 기준이 성경이 아닌 특정 인물이 중심이 되어 버렸다. 교회는 어떤가? 많은 교회들이 세상보다 더 혼란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다. 안타깝게도 거짓 뉴스의 진원지나 확산지가 특정 목사나 교인들로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그들은 특정 정치 집단의 후원을 받으면서 자칭 ‘인터넷 전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자들이 많다. 카톡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거짓과 미혹의 사람들에 의해서 긴급 기도 제목으로 포장되어 전달된다. 그래서 진짜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수많은 순진한 성도들이 어둠의 모략에 희생당한다. 그럴수록 아쉬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찌든 사람들의 거짓과 미혹에 속아서 그들의 종노릇을 한다. 성경으로 사건과 사고와 사

람들을 읽어내는 눈이 필요한데, 사리사욕에 눈먼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결국엔 그들의 희생양이 되어 간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할 성도들이 이리떼를 따라가는 격이다.

한국 교회의 이슈를 살펴보자. 교회는 안녕할까? 최근 한국 교회 안에 세습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세습을 계승이라고 우기는 목사들이 있다. 그들은 자기 뜻에 좋을 대로 행하면서 성경의 구약의 예를 들면서 세습을 계승이라고 우긴다. 심각한 우민화이다. 여러 교회들이 부, 명예, 권력을 쉽게 대물림하면서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속인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녀에게 제사장직을 대물림하는 것이 계승이듯 오늘 우리 시대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회지를 물려주는 것을 계승이라고 성경을 왜곡한다. 이에 상처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 헤매고 방황한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계속 자기 합리화를 이어간다. 그럴수록 교회는 점점 무너져 내린다. 이 일을 어찌할까? 한국 교회가 정치적으로는 안녕할까? 극우 세력에 편승한 일부 목사들의 이탈이 도를 넘어 서고 있다. 그런데 원로라고 하는 목회자들마저도 거짓 뉴스와 어둠의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을 지지하고 구국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목회자라면 정직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정직과 정의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중심부에는 돈과 권력이 자리하고 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맘몬의 종노릇 하는 것이다. 순진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원로급의 목회자들이 한국이 망한다고, 곧 공산화된다고 한국 사회가 곧 무너질 것처럼 말하는 그들의 말에 속아서 마치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처럼 염려하는 현상을 본다. 이 일을 어찌할까?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안영할까? 한국 사회에서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되고 있다.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에 따라서 미래의 삶이 갈라진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에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간격이 벌어진다. 대학조차도 빚을 내어서 학자금 융자로 다닌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에도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다 보니 빚을 갚은 이후에도 여전히 ‘지옥고’(지하철, 옥탑방, 고시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목사나 성도는 정부의 복지를 탓한다. 복지가 문제가 아니다. 고장 난 계층 이동 사다리가 문제이다. 부모의 수준에 의해서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점점 콘크리트화 되어 간다. 서글픈 현실이다. 안식년, 회년의 정신조차도 살려내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이 아득하기만 하다. 이 일을 어찌할까?

너무 안타깝워서 교회에서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틈나는 대로 당부를 한다. 거짓 뉴스를 전파하고 긴급 기도 제목으로 이슬람 혐오, 다문화 혐오 등의 여러 혐오 현상을 확산시키는 ‘카독교’의 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며, 밴드를 통해 거짓 뉴스를 유통시키지 말고,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한다. 생각하는 신앙, 사고하는 신앙, 합리적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신앙을 키워야 한다고 권면한다. 2020년에는 총선이 있다. 개인적으로 미래에 일어난 일을 예측하자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뉴스를 카톡과 밴드를 통해서 전파할 것이다. 거짓과 미혹의 소리가 교회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지성인들과 생각이 있는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고 외면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는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용하여 자기 욕망, 욕심, 욕구를 채우고자 할 것이다. 이 일을 어찌할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이들의 목소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들려져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나팔소리를 곳곳에서 크게 울려야 한다. 그래서 거짓과 미혹의 사람들을 분별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머무는 곳곳에 이루어지도록 분별력과 생명력이 있는 소리를 세상에 전해주어야 한다. 위협과 협박, 비웃음과 조롱의 소리가 넘쳐나는 세상을 그대로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선한 뜻을 가진 이들이, “나 한사람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침묵할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한다.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빛이 강하게 비치는 것이다. 빛의 밝기만큼 어둠은 사라진다. 거짓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진리의 소리가 크게 외쳐질 때이다. 그러므로 2020년에는 우리 사회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소리들이 더 크게 더 널리 울려 퍼져야 한다. 빛의 사자들이여, 침묵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외쳐라. **FAITH & LIFE**



#### ✍ 글쓴이 이상갑

산본교회(예장통합) 담임목사이다. 아세아연합신학대 학사, 장신대 목회학 석사(PCTS), 풀러신학대학원 박사과정(D.Min)에서 공부했다. 오랜 기간 무학교회 청년사역자와 학원복음화협의회 실행위원장으로 섬겼고, 현재도 청년사역연구소 대표로 청년, 청년사역자,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을 계속해 오고 있다. 저서로 <설레임>, <바이블정신>, <결국 말씀이다> 등이 있다.

# ‘고엘 बैं크’, 그리스도의 공핍과 애통이 청년들의 희망이 되어

김정원 (서향교회 ‘고엘 बैं크’ 조합장)



서울 양재역 부근 오래된 건물 2층에 위치한 서향교회는 “그리스도를 매주 기념하는 교회, 부의 양극화가 해소된 교회, 언제나 옆에 있어주는 교회, 돈이 없어도 서럽지 않은 교회, 행복한 밥상 공동체”를 지향한다. 교회 설립 일 년 후인, 2017년 10월, ‘고엘 बैं크’라는 특별한 은행이 교회 내에 설립되었다. ‘돈이 없어도 서럽지 않은 공동체’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된 ‘고엘 बैं크’의 설립 취지는 서로가 서로의 ‘고엘’이 되는 공동체 만들기, 교회 청년 중 형편이 어려운 조선족 청년 지원, 비자립 청년의 재정지원이라는 세 가지이다. 고엘 बैं크는 ‘무이자, 무담보, 자율상환’이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신용협동조합 형태의 은행이다. 이는 현재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운영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로서는 담보 제공과 상환 능력 부족으로 소액 대출조차도 막 막힌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서향교회 청년들은 이 ‘고엘 बैं크’를 통해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

히브리어로 ‘기업 무를 자’라는 의미를 지닌 ‘고엘’에서 표현을 딴 ‘고엘 बैं크’는 갚을 수 길 없는 친족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된 친족을 위해 대신 땅을 구입해 돌려줌으로써 연약한 공동체의 일원을 보호하던 구약의 ‘고엘 제도’에서 착안한 것이다. 서향교회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고엘 제도’를 통해 맘몬과 소비주의에 물든 한국 교회가 듣지 못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여 자칫하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의 소리요,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청년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소리였다.

지난 2018년 11월, 100주년 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는 “청년 부채 해방, 현실 속에서 희망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의 포럼이 있었다. 온누리교회, 서향교회, 예수마음교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뜻을 함께 하였다. 한 기독교 매체<sup>1)</sup>는 이 포럼의 취재기사 제목으로, “빛내던 청년들이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이라고 달았다. 또 기사는 관련 인터뷰 분석을 통하여, 오늘날 한국 교회 다수의 청년들은 ‘현재 출석하는 교회의 문제점’을 주로 시대착오적인 섬김의 내용에서 찾고 있다

1) <뉴스앤조이>, 2018.11.23.

며, 교회는 심적 안정과 위로를 주려 하였지만, 청년들의 삶에는 실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즉,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실제 삶의 터전에서 들리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너무 안이하고 미흡하게 대처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 시대 많은 청년들은 ‘교회’라고 하면 대형화, 불투명한 재정구조, 구령 전도 활동에 대한 몰두, 과도한 건축, 세습, 교회 내 계급화, 목사의 자질, 사회 문제에 대한 무관심 등의 부정적 이미지들을 떠올린다. 그 때문에, 심지어 청년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교회는 이제라도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하고, 실제적인 고민과 해법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향교회의 ‘고엘 뱅크’는 청년들의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들에 보다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되려는 목적을 지향한다. 다시 말해,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급한 필요를 채워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도 일조하고자 한다. 현재 ‘고엘 뱅크’는 60여명 정도의 서향교회 성도가 ‘고엘 뱅크’의 조합원이 되어 서로의 ‘고엘’이 되어주고 있다. ‘고엘 뱅크’는 조합원들의 출자금, 기금 모금 바자회 수익, 자발적인 현금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된다. 어느덧 2년 사이에 ‘고엘 뱅크’에서는 학자금, 의료비, 긴급생활지원비, 창업 소요 비용 등 약 30여 건의 크고 작은 대출이 이루어졌다. ‘고엘 뱅크’를 관리하다 보면, ‘고엘 뱅크’의 기금을 하나님이 운용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은혜까지 덩으로 얻곤 한다. 즉 ‘고엘 뱅크’의 잔고가 바닥이 드러날 때가 되면 어김없이 줄줄이 상환이 이어지거나 생각지도 않은 현금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의 청년들의 절실한 필요가 채워져 그들이 기쁨과 활력을 찾는 모습은 이 섬김을 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큰 보람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엘 제도’는 이렇게 서향교회에서 ‘고엘 뱅크’를 통해 성도들에게 안전한 삶의 기반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

음에 합한 꿈을 이루어가는 여정에도 큰 도움이 되어 주고 있는 것이다.

서향 교회의 ‘고엘 뱅크’는 이제 조금씩 알려지면서 2019년 1월에는 CBS 뉴스에 ‘고엘 뱅크’와 관련된 기사와 인터뷰가 나가기도 했다. 거기에서 어떤 자매의 인상 깊은 인터뷰 내용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가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 단 순히 기도해주겠다는 공허한 말만이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는 ‘고엘 뱅크’는 저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까지 가져다주었어요. 그리고 ‘고엘 뱅크’는 나도 무언가 해 볼 수 있겠다는 큰 용기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이 인터뷰의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크고 작은 많은 한국 교회에 크고 목직한 질문과 울림을 던지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늘 성도의 어려움을 아주 쉽게 물으면 서도 아주 쉽게 기도해주겠다고만 했던 우리의 부끄러움을 말이다!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교회에 서향교회 ‘고엘 뱅크’와 비슷한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른 많은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가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청년들의 삶을 응원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서로의 ‘고엘’이 되어줌으로써 진정한 교제(코이노니아)가 교회마다 이루어지고 청년들이 살아갈 동력을 얻게 된다면, 교회는 다시 한번 청년들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안전지대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김정원



서향교회 ‘고엘 뱅크’ 조합장이다. 서울과기대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미술관 큐레이터 및 어린이미술교육’ 연구과정을 수료했다. 국립현대미술관, 환기미술관, 성곡미술관 등에서 전시기획과 도슨트(전문 자원봉사)로 활동했고(2002-2010), 2013년에는 브랜드 ‘고엘’(GOel, grace & power)을 론칭하여, 서울시 디자인재단과 청와대 사랑채에 입점하였으며, 아리랑 TV에서 ‘주목할 만한 핸드메이드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패션 관련 디자인 디렉터로도 일했다.

#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가, 세상을 바꾸다!

김재구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



2017년 3월 24일 금요일 어둑한 무렵, 나는 새로 시작하는 '크리스천 스타트업 스쿨'(ChEMBA) 1기의 입교식에 가는 길에 노랑진 고시촌을 지나고 있었다. 이 회색 무덤 같은 곳을 바로 지나 생명을 불어넣고 일으키는 창조주의 업을 따르는 창업가들을 세우는 스쿨을 시작하는 감회가 새로웠다.

기득권에 사로잡혀 단기적 안목으로 장벽을 치며 살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한국 사회와 경제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꾸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이 있었다. 주님 뜻에 맞는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이들을 세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회에 영적인 임팩트를 주도록 하기 위하여 이 창업 스쿨은 시작되었다. 감사하게도 참가자 모두 계급장을 떼고 부트캠프(Boot Camp)의 신병처럼 강도 높은 훈련에 참가해 주었고, 외롭지 않게 수많은

원군들이 함께 하였다. 중보 기도팀이 조직되어 기도하고, 기독교경영연구원의 선배들이 멘토로 함께 하고,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앞길을 인도하였다.

이 창업 스쿨의 주요 키워드는 정탐이다. 성공한 창업가들의 주요한 비밀은 그들이 왜 이 사업을 하느냐와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에 있었다. 민수기 13장의 정탐하라는 명령이 탐지하고 탐색함이라는 것을 새기고, 그 지형과 산물, 고객과 경쟁자들을 살피되, 두려워하지 않음을 되새기며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다. 우리는 창업 스쿨이 오랜 경력의 숙달된 경영자들이든, 경영을 전혀 모르는 이들이든 누구나 창업가로 만들 수 있는 기적의 학교가 될 것을 선포하였다.

기독교경영연구원은 지난 20년 동안 이 땅에서 경영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이를 실

현해낼 일꾼을 교육하고 양성하여 왔다.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이고 기업가정신을 갖춘 그리스도인 청년을 양성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스타트업 스쿨을 시작하였다.

‘크리스천 스타트업 스쿨’ 프로그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삶과 경영의 현장에서 그 사명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실제 비즈니스 활동 전체주기를 경험하며 실행하는 ‘실전 스타트업 프로젝트’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론과 실재를 조화시키고, ‘경영’과 ‘미션’을 통합하여 영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총체적 구원을 위한 일꾼들을 기르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목표로 한 것이다. ‘앙트레프레너십’(entrepreneurship)<sup>1)</sup>을 발현하여 탐색(explore) 및 추구(pursue) 과정을 통해, 1)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2) 스타트업의 설립(launch) 과정, 3) 성장 / 위험관리, 4) 글로벌 임팩트, 5) 수확(exit) 등에 대해 배운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스타트업 스쿨’은 3년간 3개의 기수를 배출하였으며, 지금 4기를 모집하여 시작하려는 중이다. 매 기수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30명의 정예 훈련생들이 들어와 실습하고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투자 유치 성공,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 정부에 의한 우수 스타트업 선정, 수상, 경진대회 입상과 인큐베이터 입주 등 다양한 단계로 비즈니스를 진행 중이다.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다니엘,

요셉 같은 청년들을 찾아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고 멘토링하여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경배와 찬양, 경영 윤리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을 이 시대의 시장(marketplace), 즉 로마로, 바빌론으로, 애굽으로 보내야 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기업 세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이 창업 스쿨이 크리스천 기업가들의 커뮤니티 활동으로 커지길 기도한다. 선배 기업가들과 스타트업이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 - 시작품 제작지원 - 투자조합 참여’ 등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 기업가들에 의해 10억 달러를 버는 경제적 가치 창출은 물론이고, 10억 명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회적 ‘유니콘’(Unicorn)<sup>2)</sup>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FAITH & LIFE**

1) ‘앙트레프레너십’은 ‘수행하다, 시도하다, 모험하다’ 등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동사 ‘entreprendre’에서 유래했다. 외부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항상 기회를 추구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며, 그로 인하여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가 정신이다.

2) ‘유니콘’은 기업의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글쓴이 김재구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이다. 서울대 경영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기독교경영연구원 ‘크리스천 스타트업 스쿨’(ChEMBA) 학장과 ‘소셜 엔터프라이즈 월드 포럼’(Social Enterprise World Forum) 이사이며, 서울 삼성동에 소재한 현대교회(예장 통합) 안수집사이다.

# 캠퍼스 예배로 대학문화를 변화시킨다!

주선태 (국립 경상대 축산학부 교수)



경남 진주의 경상대학교에는 ‘캠퍼스 수요일예배’(이하 ‘캠수 예배’)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학기 중 매주 수요일 밤마다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이 예배가 드리졌다. ‘캠수 예배’는 2010년부터 세상 문화에 포로가 되어버린 대학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보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본교 교수이자 기독교신우회 회장이었던 저와 교문 앞에 있는 대학교회 박철우 목사의 동역으로 시작되다. 처음 10여 명으로 시작했던 ‘캠수 예배’가 지금은 등록 학생이 200명이 넘는 공동체로 성장하였고, 매주 15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10년 전, 경상대학교 캠퍼스는 복음이 메마를 대로 메마른 땅이었다. 기독교 동아리가 8개가 있었지만 CCC와 SFC를 제외하고는 10명 미만의 모임이었고, 어떤 동아리는 간사와 학생 1명이 동아리의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었다. 기독교신우회와 기독교동아리들이 연합으로 개강예배를 드려도 겨우 50명 정도만 모였다. 이렇게 작은 인원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각 단체별로 인원이 적었던 것에만 있지 않았다. 모든 기독교 단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자는 것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했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

기 때문이었다.

학내 기독교 동아리들이 함께 모여 연합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힘들다. 각 동아리마다 존재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고, 또 연합예배를 드리면 작은 인원마저 다른 단체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것이 처음 ‘캠수 예배’가 겪었던 어려움이었다. 동아리 간사님들은 자기 동아리 모임과 성경공부를 더 중요시했고, 일주일에 한번 모임을 가지는 날도 수요일 저녁이 많았기 때문에 ‘캠수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연합모임이 잘 안 되고 계토화 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캠퍼스에서 찾아보기란 참 힘들었다. 교내 게시판의 포스터나 현수막도 다른 종교단체나 이단의 것들은 많았지만, 기독교 관련 포스터나 현수막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던 그리스도인 신입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 신앙을 잃어버렸다. 신입생들은 학기초 학과 선배들과의 대면식에서 선배들이 권하는 술 한잔, 담배 한 모금에 대부분 신앙이 무너져버렸다. 기독교 문화가 부재한 대학 캠퍼스는 세상 문화에 쉽게 포로가 되었고, 복음은 자연히 메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캠수 예배’ 2년차부터는 기독교동아리의 참여를 권하는 것을 멈추고, 독자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아나갔다. 예배를 알리는 포스터와 현수막이 캠퍼스 구석구석에 붙여졌다. 매주 다른 종류의 포스터와 현수막을 만들어 붙임으로써, 이 대학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고, 매주 예배가 드러지는 것을 알렸다. 그렇게 붙여지는 수요일예배의 포스터와 현수막은 캠퍼스 안에서 세상 문화와 싸우는 그리스도 문화의 창과 칼이 되었다.

‘캠수 예배’를 섬기는 자발적 학생단체가 만들어졌고, 저는 그 단체 이름을 학교 이니셜을 따서 GNUC(God & Us, Cross)라고 지었다. 또 예배를 섬기는 GNUC 이외에 각 단대별로 단대 모임과 기도회를 만들고 인도하는 단대장들이 세워졌다. 그리고 저는 이들 모임에 필요한 경비를 후원하는 캠퍼스선교회를 조직하여 후원금을 모금하였다. 이 모든 것이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

‘캠수 예배’는 신입생들이 학과 선배들을 만나기 전인 1학기가 시작되는 첫 주에 신입생 환영 개강예배를 드린다. 유명한 CCM 찬양팀들을 거금을 아끼지 않고 초청하여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신입생들을 개강예배로 오게끔 유도한다. 그리고 개강예배에 오는 신입생들은 ‘캠수 예배’와 GNUC 및 같은 단대나 학과 선배들과 세겹줄로 엮여 타락한 대학문화에 쉽게 접할 수 없도록 한다. 또 1학기가 시작되기 직전 2월 말과 1학기가 끝나는 6월 중순에 2박 3일의 ‘하우 캠프’(하나님과 우리들의 캠프)를 가지면서 신앙을 확고하게 만든다.

이제는 거의 모든 경상대 교직원과 학생들이 ‘캠수 예배’를 알게 되었다. 그동안 교내 안티기독교 교직원들의 방해 공작도 많이 있었는데, 끝까지 예배 장소를

빌려주지 않아 추운날 운동장 본부석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 적도 있다. 저는 교내에 들어와 포교 활동을 하던 이단 IYF를 막아섰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들은 ‘캠수 예배’의 흥터로 남지 않고 훈장으로 남았고,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 악한 캠퍼스에 복음이 넘실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보람 때문에 ‘캠수 예배’는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드러질 수 있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3백 명이 모여 ‘캠수 예배’를 드리고, 언젠가 천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고 기도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기적으로 ‘캠수 예배’ 팀이 사용할 수 있는 예배 장소가 교내에 마련될 수 있기를, 또 더 많은 교수님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각 단대와 모든 학과에 기도회가 세워지고, 교내 모든 기독교동아리와 지역 교회가 함께 ‘캠수 예배’를 드리는 날을 꿈꾸며 오늘도 캠퍼스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주선태

국립 경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축산학부 교수이다. 고려대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계식육과학기술 학술대회 사무총장(2010), 미국 코네티컷대 교환교수(2000), 한우의 날 황소상(2013)을 수상했다. 진주 열린우리교회 담임목사, 경상대 캠퍼스 수요일예배 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 캠퍼스 선교, 대학교회 그리고 깊은 돌봄

박동열 (서울대 불어교육과 교수)



2만 7천여 명의 학생, 5천 명이 웃도는 교원(전임, 비전임, 강사), 3천 명이나 되는 외국인 학생, 2천 명이 훨씬 넘는 직원들, 이 많은 인원들이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곳이 서울대학교 캠퍼스이다. 하루 후문 게이트를 통과하는 인원만 2만 명이 된다고 하니, 대학 캠퍼스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과 연구로 서로 깊이 얽히고설키며 사는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학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초월적 영성, 초자연적 실재, 영적 존재로서 인간을 인정하지 않는 데카르트 후에들이 살고 있는 이성(理性)의 전당이다. 이곳에서 십자가의 도, 영성의 우위, 직관적 사유, 믿음의 세계, 성령의 역사, 기도의 능력을 주장하는 것은 미개한 것이고, 불순한 것이며 심지어 반역적인 것이 된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이 땅에 시민권이 있으나 동시에 하늘에도 시민권이 있으며, 나는 오늘도 나사렛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주의 종말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살고 있다고 선포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 되고 매우 어색한 것이 된다. 때로는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의 즉각적 이의제기, 따가운 눈총, 심지어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한다. 말하자면, 공공 영역에서 개인의 취향 문제를 배타적 진리로 주장함으로써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다원적 진리와 민주적 협약을 위배하였

다는 것이다.

그런데 2003년 3월, 서울대학교 내, 대형 강의실에서 ‘서울대학 교회’가 주일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 태줄은 1994년 미국 유학에서 막 돌아온 강신후 교수님(재료공학부), 홍종인 교수님(화학부) 등이 여러 교수님들과 정기적으로 시작한 교수기도회였다. 초창기 산파역할을 하신 교수님들의 과감한 수고 덕분에,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서울대학교를 복음화하며 나아가 민족과 세계선교에 헌신”하고, “서울대 교수 교직원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충성된 복음의 일꾼으로 양성하여 각 영역에 파송함으로써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구현”하며, “캠퍼스 선교에 헌신하는 모든 복음주의적 지역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기독교 동문들과 연합하여 복음주의 학생 운동을 창출하고 지원”하는 초교파 ‘서울대학 교회’가 탄생하였다. 현재는 ‘학부 예배’, ‘대학원 예배’, ‘국제 예배’, ‘중국어 예배’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참석자들의 상당수는 초신자들이며, 불가피하게 지역 교회에 가기가 어려운 학생들이다. 이 신앙공동체는 정관에서 밝힌 대로 서울대 복음화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학내의 각종 신앙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교회’에서는 그동안 청년들이 하나

님의 복음으로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가 쉬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 들어와 믿음을 잃어버린 학생들과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하는 청년들이 이 작은 공동체에서 참된 소망을 찾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 건물도, 조직도 보잘 것 없고, 재정도, 일꾼도, 프로그램도 변변하지 않는 이 연약한 공동체가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을 지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며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생명의 흐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마도 그것은 바로 신앙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깊은 돌봄'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독특한 선교지인 캠퍼스 사역의 핵심이란 바로 '깊은 돌봄'이란 것이 나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어떤 교회든지, 믿음의 공동체든지 성도 간의 '돌봄'은 있겠으나, 특히 캠퍼스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교제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의 '돌봄'이 일어난다. 말하자면 씨줄과 날줄로 중층적으로 엮인 성도 간의 '돌봄'이 피어난다는 말이다. 그 '돌봄'은 깊은 통증과 애증을 함께 겪어낸 진한 '돌봄'이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다는 생각이다. '돌봄'을 통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는 것은 종교화된 그 어떤 신앙 활동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것이리라.

이 공동체에는 말없이 겸손히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혹자는 담임목사가 없다는 이유로, 예배가 제사장적 예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수들이 주도한다는 이유에서 비판적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캠퍼스에는 세상의 맘몬주의의 맹위(猛威)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격통(激痛)을 호소하고, 기성세대의 위선과 교회의 도덕적 타락에 상처받는 많은 청년들이 있다. 또한 극심한 경쟁체제의 승리자로 서기를 바라는 주변의 기대

와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콤플렉스 등으로 아파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다. 그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나누는 일은 너무나 시급하다. 이것이 '서울대학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확신한다. 진실로 '상상을 초월한 깊은 돌봄'이 그들에게 부어질 때, 상처 난 청년들은 삶의 혼란함과 영적 놀림을 극복하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한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담대히 사회 현장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본다.

'서울대학교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바라는 일은 한 가지이다. 오늘날 사회 각 영역은 팩트의 진실성과 진리의 보전을 무의미하게 여기고 실재와 가상을 혼합해 버려 헛된 '신화들'과 '프로파간다'라는 새로운 우상에 점령당해 있다. 따라서 사회 각 영역으로 청년들을 보내어 각 영역을 변화시키는 일은 대학교교회 섬김이들의 궁극적인 소망이다. 마치 나사렛 청년 예수가 수없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처럼, 오늘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것에서 자유하게 된 청년들이, 돈, 학벌, 성공, 성장, 신성시된 기술과 과학주의, 국가, 종교, 육체, 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새로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속에서 결박된 사람들을 진실로 해방시키는 일에 헌신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한 명씩 깊이 돌보는 일이 오늘날 대학 캠퍼스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참 어려운 '상상을 초월한 깊은 돌봄'으로 말이다. **FAITH & LIFE**



글쓴이 박동열



서울대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교수이다. 서울대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침신대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했고, 현재 서울대학교교회 학부예배 섬김이, 한국 자크엘릴협회 대표,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다.

## 청년과 과학자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양승훈 교수

지난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서울 석관동에 소재한 (사)아프리카대륙비전(ACMK) 사무실에서 양승훈 교수(VIEW)를 만났다. 양승훈 교수는 카이스트 대학원 시절부터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참여했다. 경북대 물리교육과 학사, 카이스트 물리학과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과학사), 휘튼대학 대학원(신학)에서 공부했다. 경북대 물리교육과 교수(1983~1997)를 거쳐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을 설립하였으며, 원장과 교수(1997~2018)를 역임했다. 현재는 VIEW 교수 및 주빌리채플 담임목사, 창조오픈포럼 대표(2007~현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 <창조와 격변>, <창조와 진화>, <기독교적 세계관>, <창조에서 홍수까지>, <그랜드 캐니언>의 40여 권이 있다.



**일시와 장소**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사)아프리카대륙비전(ACMK) 사무실  
**인터뷰어** 문준호 (디오스텍 부장, 동역회 실행위원) **정리&사진** 석종준 (사무국장)

**문준호** 교수님, 먼저 자신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양승훈** 저는 1997년에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을 설립하기 위해 캐나다에 오기까지 14년간 경북대 물리교육과 교수였습니다. VIEW를 개원한 이후에는 원장과 교수로(1998-2018), 지금은 교수로만 근무합니다. 또 2002년 일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현재 캐나다복음주의자유교단(EFCC) 소속으로, 2010년 설립된 교회, 주빌리채플(Jubilee Chapel)의 담임목사로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때부터 창조론과 세계관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며 가르쳐왔는데, 1988년에 창간한 기독교 세계관적 학문을 위한 학술지 <통합연구>와 2007년에 창간한 창조론 학술지 <창조론 오

픈 포럼>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문준호** 교수님은 ‘청년의 때’(1981년)부터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앞장 서 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 구체적 동기나 이유가 궁금합니다.

**양승훈** 미국 선교사 웨슬리(Wesley Wentworth) 선생님의 도전 때문이었습니다. 1965년에 전문인 선교사로 한국에 오신 분이시요, 결혼도 하지 않고 줄곧 대학원생들과 젊은 교수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기독교 세계관 공부와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1979년경으로 기억합니다. 선교사님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관련 책과 논문도 주셨습니다. 그 중 특별히 헨드릭 반 리센(Hendrik van

Riessen)의 <과학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The Christian Approach to Science)이라는 영어 소책자를 읽으면서 지적 개종의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 때부터 학교 후배들을 모아서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세계관 공부를 통해 저는 전공인 물리학, 좀 더 넓게는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 대한 학문적 좌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상당히 이원론적인 학문관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공부를 하면서 당시 밤낮 매진하고 있었던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저의 연구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준호** 기독교 세계관 공부와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나 추억거리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양승훈** 아마 1986년 2월로 기억합니다. 시카고대학에서 연구할 때인데요, 웨슬리 선교사님으로부터 국제 전화가 왔습니다. 몇 주일 후, 피츠버그에서 주빌리 컨퍼런스라는 큰 선교대회가 열리는데, 북미 기독교 세계관 분야의 훌륭한 학자들을 여러 명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였고, 본인도 갈 것이니, 꼭 참석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참석해서 선교사님과 같은 호텔방을 사용하였습니다. 함께 지낸 며칠 동안 선교사님을 통해 큰 도전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녁에 보니, 선교사님은 잠옷도 챙겨 오지 않으셨습니다. 또 아침에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데 러닝셔츠는 큼직한 구멍이 몇 개 송송 뚫려 있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주한미군 소속 기술자로 근무하셨기에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혈은 속옷을 입고 다니실까? 가족도 없는 분이 월급은 받아서 다 어디에 쓰셨을까? 정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때 저 역시 인생에서 최고의 결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8년 한국창조과학회를 탈퇴할 때가 생각났



니다. 형식은 탈퇴였지만 제명하겠다고 해서 탈퇴한 것이니 쫓겨난 것이지요. 그로 인해 1980년 8월부터 창립준비위원회 활동부터 시작하여 근 30여년 가까이 몸 담아왔던 창조과학회를 떠났습니다. 그 때 저는 창조론 입장은 달라도 친구들은 여전히 친구로 남아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군요.

**문준호** 교수님은 오늘 날 한국 청년세대 문제의 핵심을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매년 정기적으로 한국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고, 또 오랜 기간 해외에 계셨기에 오히려 더 객관적 조망이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승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소명의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이 짧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데는 인생이 그렇게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좌고우면(左顧右盼)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인생은 갑니다. 둘째는 역사 의식입니다. 개인과 교회의 역사, 나라와 민족의 역사, 나아가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변의 현상들을 역사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 변화와 자신의 주체적 관계를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최근 한국 사회가 양극화되어서 세대 간의 극단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은 역사 교육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준호** 이제 교수님의 전문영역인 과학 관련 이야기를 잠시 듣고 싶습니다. 과학과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양승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학을 주신 것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소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과학으로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과학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에게 가난과 기아, 질병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은 이웃 사랑이라는 중요한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셋째, 과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누구인가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발달은 우리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일상적 삶 속에서는 물론 먼 우주나 극미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조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줍니다.

때문에 과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과학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과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학의 높아진 위상을 이용하여, 과학으로 위장한 이데올로기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주의나 자연주의는 과학이 아닙니다. 단지 과학에 대한, 또는 자연에 대한 이데올로기이고, 이데올로기는 곧 이상입니다. 한 예로 우리는 진화론과 관련하여 그것을 과학적 측면에서 검토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기생하는 자연주의나 무신론 등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경계해야 합니다.

**문준호** 복음주의 안에는 교리적 확신을 공유하면서도, 과학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상당한 혼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양승훈** 아마도 최근 복음주의 진영에서 과학과 관련하여서 가장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기원 논쟁’일 겁니다. 그리고 그 논쟁 한 가운데 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각자 입장을 갖고 있지만, 설혹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젊은 지구론자들이 많은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오랜 지구론을 주장하면 곧 바로 진화론자로 매도하고, 또 진화론자는 무신론자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오랜 지구론을 주장하면서도 진화론자가 아닌 사람이 많고, 진화론자들 중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원 논쟁과 관련, 제가 늘 마음에 두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speaking the truth in love)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랑이 없거든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계는 사랑이 없으면서 진리만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싸움판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틀린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지옥 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건강한 복음주의적 신학 훈련을 받기를 권합니다. 모두 신학교를 가거나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어떤 주장의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신학적 교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편이 되면 VIEW와 같은 데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있는 곳에서 성경해석학이나 조직신학 분야의 강의를 한두 개 들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준호**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기독교 세계관 공부와 운동에

### 참여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양승훈** 기독교 세계관 공부와 운동은 그 자체를 전공으로, 또는 생업으로 삼는 몇몇 분들을 제외하면 교양이자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오늘날 몇몇 분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된 것은 이 운동이 지나치게 사변화, 학문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한국에서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처음부터 대학원 학생들이나 젊은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운동입니다. 때문에 학문화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현상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실천 운동이라고 믿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하는 것이지요. 물론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절로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적 삶을 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계속 ‘공사 중’이니까요. 다만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분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를 위한 토대로서 조금은 더 이론적 체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적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문준호 우리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동참함에 있어서, 여전히 무엇을 가치 있게 볼지며, 앞으로 특별히 무엇에 유념해야 할까요?

**양승훈**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세계관 학자 헤슬람(Peter Hesselam)의 지적처럼 근대 교회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그러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갖는 약점과 유익 혹은 강점은 이미 충분히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약점을 조심하면서 공부와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속(巫俗)이라는 기층 신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기복신앙, 번영 신학,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횡횡하는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말과 글, 삶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지성인들은 전공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바른 세계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준호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앞세대로서 꼭 권면하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승훈** 최근 몇몇 청년들로부터 나라의 미래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절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지나치게 비관적 태도를 갖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 한 번 잘못 뽑았다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성실하게 하되 지나치게 비관적이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고쳐야 할 바가 있다면 고치면서, 참여해야 할 운동이 있으면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렘29:6).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2600년 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3포 세대, 7포 세대 등의 자조적인 표현을 버리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밝은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꿈을 꾸는 것을 격려하는 세계관 운동이 되면 좋겠습니다. **FAITH & LIFE**

## 기독교 세계관과 함께 하는 여정

박문식 (한남대 기계공학과 교수)



나는 지금도 여전히 내 자신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고 알아차린다. 한편으로는 몸이 약해지는 쪽으로의 변화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의 지평이 계속하여 펼쳐지는 것 같은 변화이다. 오십대 이후에 나에게서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신체적 이상증상이 왔었는데 어깨와 치주와 방광, 그리고 대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불편함이 없어져서 건강하게 지낸다. 특히, 내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겪었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그리고 혈압이나 당뇨가 없으니 아직 생명 신호에는 별 이상이 없어 감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 나이는 시간에 따라 들어가고 있다. 내 마음은 어떠한가? 지난 여름에 우연히 어느 유명 회사의 검사기계로 나의 우뇌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는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다. 순간 조금 의아했다. 나는 과학과 공학을 주로 하는 사람인데 우뇌가 활성화 되어 있다면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전에 또 다른 결과를 받아 보게 되었는데, 흔히 많이 해보는 성격유형 심리검사에서 과거에 내가 알던 성격이 아닌 다른 성격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다. 내가 왜 이러는 것일까? 그 이후 줄곧 나는 나에게 대한 검사 결과를 곱씹어 보면서 '나의 나 된 것'에 대해

계속하여 해석해 보고 있다. 따지고 보면 지금도 나의 생활은 안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작으나마- 역동의 연속인 듯하다.

가정에서는 자녀와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교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회에서는 여전히 섬김이 발생하고 기도가 필요하며 은퇴 후의 인생을 위한 모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지역의 대학교수선교회를 맡았으며 교수 선교사로 임명받고 한국 학생들과 유학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나의 처신들은 많아졌으나 그 본질은 하나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비로소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뜻을 묻고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이다.

내가 기독교 세계관을 처음 접한 것은 삼십여년 전, 홍콩의 과학원에 입학하면서 부터이다. 교회 중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아닌 기독교 서적을 읽고 공부하는 독특한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접속이 되었다. 솔직히 나는 처음 그 모임의 선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었고 단지 지식인답게 보이는 무언가를 하는 고상한 모임 정도로 이해하였다. 그

러나 박사과정과 결혼과 가정 그리고 잘 풀리지 않는 학위논문과정 등이 얹히면서 동시에 조직신학과 교회사 공부를 통해 신학과 기독교 학문세계에 점점 몰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대기업에서의 직장생활과 대학에서의 교수 생활로 이어질 지금까지 내 인생에는 항상 그 옆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동무가 같이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며 나도 동무로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 앞에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는 꿈이 펼쳐져 있다.

나는 기계공학으로 학위를 마치고 대기업에서 항공기 설계 및 개발 분야로 직업을 갖게 되었다. 공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기계공학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일구어 가는 것은 바람 불지 않은 범선의 항해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신앙과 독서를 이어가는 기독교 세계관 동역회 소모임은 이어져 갔다. 학교에서 직장으로 터전이 바뀌어 나가던 우리들은 곧 직장이라는 곳이 각종 고민과 어려움들이 계속하여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카이스트의 쪽문을 나가면 대덕한빛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그 교회의 카페에서 -별도 건물- 만나곤 하였다. 기계연구원의 이근호 박사, 항공우주연구원의 김승호 박사, 특허청의 김병남 박사, 핵연료의 전종국 형제 등등이 주로 함께하였다. 각자의 직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은 고스란히 우리의 토론거리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었다. 그렇게 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고 적용해 보려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고 문제와 모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만 함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한남대학교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교육이라고 하는 필드에서 더 많은 기독교 세계관의 주제들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작은 실천을 해 나가게 되었다.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이루어

가리라는 꿈은 기독교 세계관 친구들과 같이 해 온 삼십년 동안 변함이 없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현실이 되지는 못하였다. 어쩌면 그 꿈은 과거라면 가능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갈수록 실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든다. 나를 포함하여 과거에 그런 생각을 갖는 친구들이 너무 순진하였거나 무모했을 수도 있다. 그것이 온전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 분 뿐이실 것이다.

나는 공학자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예수의 부름을 받아 나선 사명자로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사회 공동체의 현장에서 살고 있다. 처신은 많으나 본질은 하나이다. 본질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께 묻고 듣는 기도로 삶의 현장에 나아가는 그것이다. 세상은 창조에 대한 모순과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그 영적인 탄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실 육과 영의 통합 그리고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위하여 보내어진 사명자들 일 것이다. 은퇴를 비롯한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몸의 쇠퇴를 느끼지만 마음은 늘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그것은 발견이고 감동이고 도전이고 모험이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면 나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뜻을 펼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전4:16). FAITH & LIFE



글쓴이 박문식

한남대 기계공학과 교수이다. 카이스트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우중공업 우주항공연구소 근무시절 국내 최초의 무인 항공기(UAV) 및 초음속 고등훈련기(T50) 양산개발 책임연구원을 지냈다. 2016년 IBC 세계 100대 교육자(Top 100 Educators)에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감사,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대전교수선교회 회장, 한남대학교회 장로로도 섬기고 있다.

# 기독교 세계관적 신앙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경건 (서울대 화학교육과 박사과정)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분석하면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한국어는 앞에 나오는 말이 뒤에 나오는 말을 꾸민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의 주안점은 ‘기독교’라기보다 ‘세계관’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세계관’ 사이의 싸움이다. 다양한 ‘세계관’ 내에서 기독교적인 것을 구별해내자. 그 안경을 끼고 보면 기독교 세계관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세계관’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미약하나마 들여다본 후의 개인적 감상이다.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겨져 있는 듯하다. 기독교 세계관 자체에만 과도하게 집중할 경우, 여타의 세계관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의 이행하는 동역학을 설명해내기 어렵다. 마치 참호전 같은 포스트-진리 시대의 사상 전투에서, 땅을 더욱 깊게 파는 일은 패배를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승리의 발판이 될 수는 없다. 다양한 세계관들을 체계적으로 분절하고 정리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메커니즘은, 다른 모든 ‘세계관’ 운동에서도 그 대로 차용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기 때문이다. 결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방법론적 차원에서 변화되어야만 한다.

필자는 기독교 세계관적 신앙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본래 복음주의적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 이를 증

진하고 확장시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지적으로 이에 동의하면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고, 더 나아가 나의 행동과 습관, 결과적으로 존재 전체가 변화하게 된다. 필자는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적 신앙만이 세계관의 전회를 가져오며, 그러므로 이 위에서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기독교 세계관적 신앙의 전형은 아브라함이 옳다 여김을 받은 믿음에서 찾을 수 있다(창 15). 그는 여호와를 믿었으되,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는 말씀을 정말로 믿었다. 이것이 어떻게 세계관적 변화인가? “그가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부르시는 이셨다”(롬 4:17). 말라비틀어진 100세 노인의 몸을 살려 잉태하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생물학적-과학적 세계관이 바뀌었다. 단 한 명의 족장으로부터 큰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사회적-역사적 세계관이 바뀌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 그것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롬 4:18, 22).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동의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세계관을 수정한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적 신앙의 정수는 다음 두 이야기에서 다시 드러난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달하였음에도 정착하지 않고 여전히 유목민처



럼 장막에 거한 일이다(창 12).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새 예루살렘을 미래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히 11:8). ‘장차 올 세상’ 혹은 ‘내세’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론적 세계관으로 바라본 것이다(히 2:5, 6:5). 다음은 약속의 자손 이삭을 죽여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한 일이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에 직면하여 고뇌하였겠지만, 그 자신이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이 이삭을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히 11:19). 이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매우 치열한 논리적 고찰의 결과였음을 의미한다. 뻗속 깊이 새겨진 기독교 세계관적 신앙이 여타의 과학적 세계관을 압도하며 부활 신앙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과연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적 신앙을 전제하고 있는가. 필자가 공부 중인 대학 주변에서 모임, 행사, 학회 등으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접하지만 긍정적으로만 답하기는 어렵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이 많게 느껴진 까닭이다. “믿는다”는 말보다 “학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교회에서 들어 왔던 것과 다르다”, “생각해볼 일이다”라는 말이 많다.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하나님을 믿는 영역을 줄이고 경험적 학문이 개입할 영역을 늘려온 것은 아닌가. 우선순위가 뒤집혀야 한다. 기본적으로 경험적 학문의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과 그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의 통일성을 다소 해칠 수 있으나 동역회에 제안하고 싶다. 첫째, 상당수 구성원들을 품어내지 못한 한계를 절감하고 울타리를 넓혀야 한다. 둘째, 보다 엄밀한 학술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학술지 <신앙과 학문>에서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논문이 게재되는 경우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진실한 미래지향성을 갖추어야 한다. 앞으로 개최되는 학회에서는 회고나 성찰보다 전망과 비전 제시가 더 풍성해지는 나눔의 기회를 소망한다. 소장 학자들이 앞에 서는 기회 또한 더 적극적으로 열려야 한다. 주제 강연의 질의문답 시간에 질문 순서가 나이순으로 정해지는 것 같은 인상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크다. 과연 동역회는 다음 세대를 위하고 있는 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은 바로 그런 면에서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이경건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박사과정을 마쳤다. 서울대 화학교육과와 컴퓨터공학부를 졸업했다. 학부시절 서울대기독교인연합(서기연) 대표와 전국기연네트워크 대표를 지냈고, 대학원 시절에는 서울대 기독교대학원생모임 대표로 섬겼다. 현재 대학춘교회 청년부 회장이다.

## 청년은 왜 환상(visions)을 볼까?

양정아 (성균관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요엘서를 인용하여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다. 왜 성령이 오시면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것일까? 청년이 본다는 환상은 무엇일까?

우선 ‘예언’은 프로페튜오(προφητεω)로 ‘예언적인 계시를 하거나 예언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꿈은 에넵니온(ἐνύπνιον)으로 ‘꿈이나 잠에서 나타나는 환상’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환상은 호라시스(ορασις)로 ‘시각(봄), 출현, 환상’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에서는 종종 비전으로 번역된다. 에넵니온(ἐνύπνιον)이 자는 동안 보는 환상이라면 호라시스(ορασις)는 깨어있는 동안 보는 환상을 말한다.

원어의 의미를 기반으로 생각해 보면, 청년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깨어서 환상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환상은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을 지칭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청년이 지금 여기에서 환상을 본다는 것, 깨어서 본다는 것은 현실적 삶의 기초가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상을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상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님을 도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사역을 해 왔다. 그러나 그것이 내 비전이 된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교 시절 비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는 것을 보여주셨다. 나는 이 비전이 뜻하는 바를 현실적으로 알지 못했고, 부모님의 사역과 연결이 된다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내 비전은 내 현실과 분리된 환상으로 존재했으며, 내심 해외를 돌아다니는 멋진 삶이 나를 기다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대학교에 진학 한 후 지병이었던 아토피가 심해지면서 오히려 내가 준비하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다. 주변에서도 나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때 그 비전은 현실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추상적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할 수 없었고, 주변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기 시작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시도해나갔다. 부모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신학을 공부했고,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만났고, 다문화 교육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늘 재정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부모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공부를 해 나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학금을 신청하고, 잠을 줄이며,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힘든 시간 동안에도 다문화 친구들과 재정, 학업, 건강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위로했다. 다문화 이주 가정과 아



이의 성장을 함께 고민하면서 아이의 양육과 같은 각 가정의 구체적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정말 다양하고 매우 현실적인 삶들의 이야기를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나의 현실적 삶은 자연스럽게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연결되었다.

나의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 드러난 현실적인 환상에 대한 깨달음은 다음 두 가지 말씀에 나온다.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다. 히브리서 11장의 말대로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또 선진들이 감당한 믿음은 그들의 삶 속에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 이루어짐을 증거하고 있다. 이때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로 환상이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은 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며, 망대를 준공하기 위해 계산해야 한다. 전쟁에서 이길 것 같지 않으면 미리 화친을 청해야 하며,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하여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인 환상이란 믿음이며, 믿음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십자가를 매일

지고 가는 길에서, 망대를 준공하기 위해 현실적인 계산조차 철저히 수고를 아끼지 않되,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청년의 때에 놀라운 많은 실상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여, 이렇게 다시 한 번 함께 선포해 보자.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현실 속에서 이를 수 없을 것 같은 환상을 바라보고, 그 환상을 이루기 위해 치열한 제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주어진 모든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바라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주님의 영이 주시는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자. **FAITH & LIFE**



#### 글쓴이 양정아

성균관대 교육학과 박사과정(교육철학 전공) 중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다문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사역을 해 왔다. 성균관대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했다. 현재 특별히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장애인과 다문화 지체들로 구성된 안산한주교회(백석대신)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다.

## 창조의 삶을 반영해 내는 오늘

박상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나는 교육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대학교 2학년 때 만들었던 사명 선언문이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자라났으나, 평균 이상으로 한국 교육의 문제를 뼈저리게 느끼며 교육을 바꿔내고 싶은 열정이 참 앞선 학생이었다. 그 와중에 내 인생에 문을 두드려준 하나님은 그 공의로운 열정보다는 박상희라는 나에게 무한한 관심을 쏟으셨다. “나의 존재가 있는 그대로 존귀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셨다. 그 후에야 조금씩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너져가는 세대 속에 어떠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되어야 하는지 훈련시켜주시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교육’이라는 영역에 그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고 믿는다. 교육영역에서 가장 생생한 현장은 학교이지만, 그 학교와 학교의 구성원들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보다 필요에 맞게 지원해주고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었던 나에게 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곳을 사역지로 허락하셨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직장 내 리더십의 부재와 불의한 업무 지시, 조직의 갑작스런 해체 등은 부르심에 부응하는 삶은커녕 그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동요’의 마음으로 가득 차 버렸다. 융통성이라는 명목으로 시시때때로 지시받는 불의한 업무들과 국가 예산을 해당 목적에 맞게 쓰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뿐 만 아니라 그것

을 내 손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주께 하듯’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려한 것 뿐 인데 그 성실은 결국 불의한 일을 돕는 결과가 되어버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괴로웠고, 분노의 감정에 휩싸였던 것 같다.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시기보다는, ‘인내’하고, ‘충성’을 다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너무 원론적이고 답답하게만 느껴졌다. 결정적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은 나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 대안은 오직 하나,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직에 눈을 돌려버린 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창6:5-6)”

그러나 일차적으로 주일 말씀과 공동체 교제 등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은 세상은 원래 이렇다는 것이고,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었다.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죄로 인해 악해진 세상이 된 것을 성경의 맥락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의 시공간도 동일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의 왕 같은 자녀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오늘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창1:27). 이 말씀은 창조의 삶을 반영해 내는 오늘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직장내 상황과 감정에 함몰되지 않는 것이다. 작년의 직장생활을 돌아보면 그 회오리 속에 들어가니 하나님의 음성도, 나의 원초적 부르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던 것 같다. 또한 그것은 상황에 그저 타협하거나 순응하라는 의미가 아님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한편으론 그 상황을 묵과하거나 회피하는 것 같아서 더 감정적이 되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창조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불의한 영역이 있다면 지혜롭게 바뀌낼 수 있는 용기와 노력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창조’로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싶다. 세상 속에 살되 타협하지 않는 삶,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2020년이 되길 소망한다. 결코 직장이 안정감을 주는 곳은 아니다. 직장은 언제나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내 삶의 안정감이시며,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부르심에 충성되는 것, 성실을 다하는 것, 이기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때때로 불의한 일이 있을 때 단호하게 아니라고 지혜롭게 말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삶을 사는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삶의 방향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FAITH & LIFE**



 글쓴이 박상희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원이다. 한국교원대 대학원 문화예술교육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20살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교회와 예수전도단(YWAM)에서 DTS 등의 훈련을 받았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이며, 교육 영역에서 하나님나라를 확장시켜나가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청주북대교회(예장통합) 청년이다.

## 순교자 무덤가에 서서

오민용 (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한 해를 마무리하거나 새로 시작할 때면 양화진과 절두산의 순교자 묘지를 방문하곤 한다. 며칠 전에도 홀로 그곳을 방문하고 왔다. 묘지는 남루하고 볼 품 없는 곳이지만 내게 묘지는 도시의 심장이자 영혼의 정화소이다. 자신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매일 상기하는 것은 이런 저런 허명으로 자아에 붙은 욕망의 찌꺼기를 말끔하게 정리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묘지는 시간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시간을 넘어있는 시간 속의 유일한 장소이자 공간이다. 죽음을 상기하지 못 하는 이는 생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지 않고, 생의 방향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나아가 묘지는 인간으로 하여금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로서 날을 계수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고, 동시에 부름 받은 단 하나의 삶을 집중하도록 해 준다. 또한 묘지는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고, 재미는 다소 없지만, 참된 즐거움과 행복만 향유하도록 인도해 준다. 그리고 묘지는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단 하나라도 올바르게 더 깊고 깊이 사고하도록 이끌어 준다. 하지만 무엇보다 묘지에 서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침묵은 단순히 말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직면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의 한계에서 이루어지는 침묵이기 때문이다.

이 침묵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독교 세계관을 생각해 본다. 기독교 세계관의 본

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또한 그 본질은 우리가 자신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간주하려는 독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보는 자기 인식의 타락과 왜곡 즉, 결점과 부족함을 겸허히 인정하는데 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계시와 은총의 영역인 동시에, 세상 속에서 실현할 올바른 이성과 합리성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긴장이 발생한다. 흔히 말하는 창조, 타락, 구속의 도식은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식일 뿐이다. 이 도식을 절대화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세상은 이 도식에 기계적으로 포섭되는 대상으로 전락한다. 세계관은 세계라는 실재의 문제이지 기독교를 투사한 관념적 세계의 구축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계에 대한 가치, 의미, 이해 및 해석을 추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기독교 안에서 그 추구의 적절성과 구체성을 확보 받을 수 있다. 이때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에게 기독교와 세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선의 왕복'을 자기 이해의 구조로서 개방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독교와 세계는 상관적 관계 속에 있다.

학문으로서 기독교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하나님 은혜의 축적과 그 축적을 문자로 정립하는 활동이라면, 세계라는 실재는 미래로부터 현재로 도래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기 활동의 살아 있는 현장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세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고할 때, 그 둘 사이에는 우선적 순위가 없으며 그 둘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는다.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실천하려는 핵심, 곧 성경의 핵심은 무엇일까? 실천을 하기 위한 가치 또는 ‘좋은’(Good)을 파악해야 한다. 기독교의 핵심가치는 ‘믿음, 소망, 사랑’이며, 실천원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이 가치에 동참하고, 실천원리를 통해 현실에서 이 가치를 실현해 낸다. 이 핵심가치와 실천원리로 세상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기타 세속의 세계관과는 다른 기독교 세계관의 정수이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핵심가치와 실천원리를 단순히 개념화하고 그 개념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이성만 타락한 이성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개념과 함의를 계속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념이 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핵심가치와 실천원리가 각자의 실존과 시대의 환경에서 구체화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의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우정의 관계이자 놀이의 관계이고,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의 관계이자 사랑의 관계이다. 이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관점이자

행위이다. 이것은 타락으로부터 회개하여 중생한 이성과 합리성뿐만 아니라 계시와 은총이 기독교 세계관과 본질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가치와 실천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진(眞)과 선(善)이 구현된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미(美)가 구현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이 구현되고 실천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총체적 인격과 영광을 드러내는 관점, 즉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한 구현과 실천적 구조화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에게 잠시 위탁된 각종 타이틀을 통한 말과 행위가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이 직면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침묵 속에서 핵심가치와 실천원리를 통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빚어가는 일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오민용

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한동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한 후,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신학석사(M.Div.),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철학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 연구 분야는 자연법, 법신학, 형법 등이다. 청파교회(기감) 청년으로서,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총무로도 섬기기도 있다.



## 청년을 위한 어떤 인생 세계관 강의

추태화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포드 대 페라리〉  
(2019, 제임스 맨골드 감독)

###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쉽게 정의하기에 어려운 단어가 인생이다. 낙천적인 성격, 멜랑콜리한 성격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습관에 따라 삶이 편이하게 갈릴 수도 있다. 어떤 이는 “인생은 백지 같다,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하기도 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인생을 어떻게 이해할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이렇게 가르친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 두 인생관의 대결

개인이나 사회에 내재해 있는 세계관, 인생관은 수없이 다양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관이 사실은 개인이나 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본적인 힘이 된다는 것이다. 즉 세계관과 인생관은 삶을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성공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저력이다. 영화 〈포드 대 페라리〉는 두 가지 다른 세계관을 조명하고 있다.

1960년대 중반, 미국의 자동차회사 포드 그리고 이태리 출신의 자동차회사 페라리. 포드는 명실공히 대자본의 거대기업, 반면 페라리는 소자본의 중소기업. 외관상 두 회사는 경쟁이 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 경주에서 포드는 페라리를 이겨보지 못했다. 승패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포드는 자본과 힘을 앞세워 페라리를 합병하려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힘이면 다 되지 않겠는가? “큰 것이 아름답다”(Big is beautiful)는 포드의 세계관이었다.

약육강식의 자본이 횡행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작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페라리가 선택한 것은 독자적인 창의성이었다. 자동차에 개성이 숨 쉬는 예술을 불어넣는 것. 곧 모방할 수 없는 나만의 창조성이 승리의 비결이었다.

### 성공 비결 1: 신뢰

포드는 페라리를 넘어서기 위해 셀비라는 전직 레이싱운전자를 고용한다. 그에게 전권을 맡기며 경주에서 이기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자동차 경주는 고도의 기술직이 모여져야 하는 종합기술 격투장. 셀비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그는 옛 친구 켄 마일스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두 사나이 사이에 모종의 신뢰와 우정에 다시 불이 붙는다.

### 성공 비결 2: 훈련

켄 마일스는 퇴직한 상태처럼 경주를 해본 지 오래다. 경기력이 떨어진 상태이지만 그의 내면에는 자동차 경주에서 우승해 보리라는 집념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친구의 제안에 동의하긴 했지만, 예전 실력을 재가동하기엔 훈련이 필요했다. 그는 어느 날 경주장으로 아들을 데리고 나간다. 자동차들이 고속으로 질주한다. 위험해 보이는 커브길, 전속력으로 질주해야 하는 직선도로, 그러나 다시 급선회 굽은 길, 자동차끼리 부딪치는 위기 순간 등등 길 위에 변화가 산재해 있다. 그게 인생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묻는다. “그런 게 보이니?” 그러면서 아버지는 스스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한다. 재기를 위한 몸부림, 최후 승리를 위한 마지막 담금질.

### 성공 비결: 열정

켄 마일스는 전력이 화려한 레이싱 운전자였다. 과연 재기가 가능할까. 가정은 궁핍해지고 가장으로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있다. 내 안에 살아있던 경주 능력, 자동차와 한 몸이 되어 속도와 방향을 제어하는 성취감, 그 고도의 예술적, 동물적 감각을 어찌 묻어버릴 것인가. 나이가 든다고 내 안의 열정을 소멸해 버릴 수는 없다. 다시 레이싱에 뛰어든 켄 마일스.

### 인생이란 불가능에의 도전이다

인생은 어쩌면 레이싱 같은 고속질주인지도 모른다.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정글 같은 사회에서 생존해야 하는 현대인, 특히 청년세대들이 겪는 경험은 불확실성에, 혼돈일 수 있다. 어디에다 기준점을 두어야 하는가? 모두가 앞으로 달려가는 상황에서 나의 가능성은 성공에 이를 수 있을까? 오히려 나는 성공의 노예가 되지는 않는가?

### 최후 승리와 내 안의 달란트

성경에도 레이싱과 같은 비유가 보인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전 9:24) 그렇다. 우리 인생은 하나의 레이싱, 달음질이다. 앞만 보고 달리는 무한 질주, 무한 경쟁이 아니라 믿음의 상을 위해 달리는 의로운 달음질이다.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고전 9:26)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달려야 한다. 그렇게 달음질한다면 우리 인생에 최후 승리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추태화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 세속화 시대에 예술을 한다는 것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일전에 어느 작가 지망생으로부터 상담을 요청받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미술대학원에서 미술을 배우는 일이 신앙과 상충할 때가 많으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어릴 적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양육 받은 그는 낯선 교육환경에서의 적응에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신앙을 지닌 작가 지망생이 세속적 가치와 담론이 난무하는 대학에서 겪는 고민의 하나이다. 필자도 대학 시절에 그런 딜레마로 휘청거렸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는데 먼저 주위에 여러 크리스천 미술단체가 있으니 가입하여 동료, 선배들에게서 조언을 얻는 것이 좋다고 말해주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멘토를 만나든가 경험이 풍부한 분의 조언을 듣는 것이 시급해 보였다. 이와 함께 그 자신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대응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간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하듯이, 예술도 그 태생과 성격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작가 지망생에게 프란시스 쉐퍼(F. Schaeffer)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로크마커(H. Rookmaaker)의 <현대예술과 문화의 죽음>, 그리고 낸시 피어시(Nancy Percy)의 <세이빙 다 빈치> 등 몇 권의 책을 추천해주었다. 그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대학에서 그가 치를 고충과 싸움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종종 학생들에게 “네 느낌대로 그려라”, “개성을 표현하라”고 주문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이 말은 개인의 표현적 자유를 권장해주는 것 같지만 실은 토대를 잃어버린 가치관을 반영해준다. 토대와 좌표를 잃어버리고 감정에 우선권을 부여해주는 상황이 되었으니 예술은 개인주의와 개인의 기분에 맡겨진다. 그런데도 순수예술에 대해 “고차원의 진실을 드러내거나 영혼을 치유하는 초월적인 정신적 역할”(Larry E. Shinner)을 기대하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다. 현실에서도 오히려 이와 상반된 현상이 목격된다. 대학에서 유독 배제되어야 할 것은 종교적 신념이 담긴 그림이다. 물론 관대하게 보아주는 교수도 있지만 누가 신앙을 담은 도상을 그리기라도 하면 시대에 뒤쳐진 사람처럼 눈총을 받는다.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의 제임스 엘킨스(James Elkins) 교수는 현대미술에서 종교는 기이한 장소에 위치해 있다고 정확히 지적했다. 기준과 가치관이 확실한 그림은 있어선 안되고 느낌과 개성은 존중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빚어진다.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관념이 공격대상이 되는 셈이다. 진리의 기초를 상실한 시대에는 진리 자체를 거부하고 ‘내키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 월요일에는 참이었으나 토요일에는 거짓으로 판명날 것

청년 기독교 작가들을 초대한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의 초대전이 올해 1월 토포하우스에서 열렸다. 사진은 전시가 개최되었을 때의 전시장 모습



에 의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스런 일이다.

한스 로크마커는 예술의 문제를 단순히 미적 문제나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인식하였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후 10:3-4). 그는 현대 예술이 비도덕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인간성을 공격하는 등 꾸준히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잠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먼 훗날에야 있을 법한 공상적인 이야기이기보다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지도자를 선출하거나 지구 환경을 돌보는 문제만큼이나 실천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학문과 예술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반란자들이 주도권을 장악했는데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기며 초연한 태도를 취한다면 상황은 날로 나빠질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원칙 위에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많은 영역을 세속주의에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가 현대 문화로부터 후퇴해서 얻은 것은 ‘창문 없는 세계’(Peter L. Berger), 즉 초자연적 영역이 제거된 고립화였다. 이 고립화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창조질서를 준수하기보다는 무화시키는 ‘영적 근시’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는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과 거짓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은 유일하게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범람하는 세속주의 물결 가운데 기독교 청년들이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문화와 예술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세속주의에 등을 돌리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스터디하여 반박할 줄 알며, 놓치고 있는 부분을 기독교의 체계 안에서 찾아 제시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창조세계의 청지기로서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문화예술에 참여하되 기존질서를 비호하는 입장에서 기보다는 죄악과 불의는 멀리하되 옳은 것, 정의, 사랑, 미,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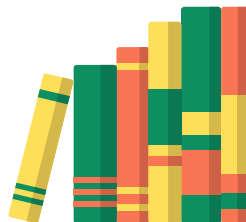


#### ✍️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현대회화의 발자취〉, 〈한국미술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 복음의 능력을 다시 찾게 하는 반성과 희망

김선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선교와 문화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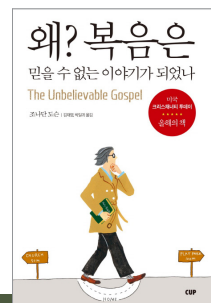
언뜻 전형적인 경건 서적류에 속할 이 책은 제목부터 상당히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원제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복음>(Unbelievable Gospel)이다. 세상에! 복음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희망인데, 그 복음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말인가? 이 불편함은 머리말에서도 “거리낌이 되어버린 전도”나 “복음과 사회 사이의 엄청난 간극” 등의 냉정한 진단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우리가 물려받은 전도방식과 현재 우리의 문화를 반성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왜 전도라는 말을 혐오하는지, 왜 복음이 들을만한 소식이 못되는지를 살펴해보겠다고 한다.

이 책은 세 단원으로 전개된다. 1부에서 저자는 “전도는 왜 어려워졌나?”를 다루며, 우리에게 익숙한 관행적 전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전도의 비인격성, 설교조 방식, 다원주의라는 불리한 환경, 신자들의 무지로 인한 전도에 대한 불확신 등이다. 아주 새롭지는 않지만, 전도에 대한 필요 충분한 진단이다. 저자는 2부에서 “무엇을 전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다룬다. 그는 복음의 성격을 역사적, 개인적, 우주적이라고 정의한다. 역사적 복음은 성경의 기록이 사실에 근거하며 이것이 믿음의 교리로 전수되었음을 의미한다. 개인적 복음은 한 인격의 근본적 변화를, 우주적 복음은 복음의 공적,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균형을 위한 표현이다. 저자는 선교적 교회의 실천을 위한 교재도 집필하였는데, 다른 선교적 교회론들이 주로 하나님의

선교에서 출발하는 반면 그의 교재는 복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차별이 있었다. 나는 그의 이러한 접근이 복음주의 성향의 교회들을 선교적 교회에 헌신하게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일 뿐 아니라 안전하고 견고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1부가 전도에 대한 반성적, 개혁적 문제 제기를 했다면, 2부는 복음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도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오늘날 사회적, 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믿음직스럽게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저자에 의하면, 복음이 믿을만한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음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상황에서의 복음을 소통하는 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지 못할 복음을 나누고 있다는 것은 무덤의 돌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놔둔 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158쪽) 복음을 어떻게 들리도록, 믿을만한 가치가 있게 소통할 것인가? 누구나 지적하지만, 구체적인 각론을 논하자면 쉽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이 책의 진가는 바로 3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에서 빛을 발한다. 저자는 복음의 메타포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늘날 사람들의 여러 상황에서 복음이 변주되어야 함을 강조

〈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나?〉 | 조나단 도슨 저 | 김재영, 박일귀 역 | CUP | 2017



한다. 그는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칭의, 새 창조, 그리스도와 의 연합, 속량, 양자됨이라는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 주제가 현대인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칭의는 오늘날 자신을 도덕적으로 용납 받고 증명하려는 이들에게 연결될 수 있는 교리다. 새창조의 교리는 중독 등의 실패와 상처로 망가진 인생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 오늘날 관계의 어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낮은 자존감 속에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와 의 연합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다. 기독교를 편협하다고 비난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복음의 메타포는 속량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구원과 용서는 다른 이들에게 환대와 관용을 베푸는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된다.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양자됨의 교리가 중요하다. 구원은 우리의 존재와 자격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됨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저자의 이러한 작업은 기독교의 복음과 현대인의 삶을 잇는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그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질문에 관심을 가지라고 요청하며, 이는 신학적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문제라고 한다.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선교사상가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그의 기념비적 저서인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IVP, 2010)에서 ‘복음의 해석자로서의 회중’(Congregation as Hermeneutic of the Gospel)이

라는 유명한 경구를 남겼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삶이 복음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통로이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너무 멋지다. 그 단어의 울림만으로도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세상에 담대히 증언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한다. 허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믿을만하고 매력적으로 들리는지를 숙고하면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 물론 인간이 이성의 한계 안에서 회개와 믿음의 복음을 자연스럽게 깨닫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겸손과 사랑으로 믿을만하게 들려져야 할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아집과 오만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지 않은가? 이 책의 제목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 책을 덮으면 반성과 비판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의 깊고도 넓은 능력을 재발견하는 희망을 찾게 만든다. 그래서 믿을만한 책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김선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선교와 문화 교수이다. 미국 풀러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 실천신학(전도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Ph.D. in Theology)를 받았다. 귀국 후 학원복음화협의회 캠퍼스 연구소장, 새세대 아카데미 교회성장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교회의 청년 선교와 교회 성장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저서로는 〈전도의 유산: 오래된 복음의 미래〉(2004), 〈교회를 위한 전도가이드〉(2012)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 20여권이 있다.

# 그리스도인을 위한 서양철학 이야기

김 욱 (성공회대 조직신학 박사과정)



이 책은 기독교 철학적 입장에서 평가한 서양철학통사 격인 2부 앞에 세계관과 철학, 기독교 신앙의 관계와 필요성을 다룬 1부, 그리고 로마 가톨릭 철학을 포함한 현재의 기독교 철학 상황 소개와 북미의 신칼뱅주의 기독교 철학인 '개혁주의 인식론'을 대표하는 플랜팅가(A. Plantinga)와 월터스토프(N. Wolterstorff), 또한 네덜란드 신칼뱅주의 기독교 철학이라 할 '개혁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도이어베르트(Dooyeweerd), 볼렌호븐(Vollenhoven), 시어벨드(Seerveld) 등을 소개하는 3부가 마치 한 지붕 세 가족이 살고 있는 큰 집과 같아서 만만하지가 않았다. 번역자 신국원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 "이 책의 특수한 접근은 이제껏 국내에서는 한 번도 접할 수 없던 유의 통찰을 담고 있다." (4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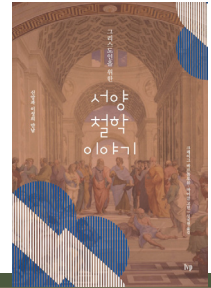
〈그리스도인을 위한 서양 철학 이야기〉의 장점은 온건하지만 명료한 어조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중하고 충실하게 철학사조들을 이해하도록 이끌면서, 허세 어린 단정적 평가와 결론을 피하되, 신칼뱅주의적 기독교 철학의 입장을 명료하게 서술한다. 또, 이 책은 성경 내러티브가 보여주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 교리에 분명히 서서 철학함이 갖는 생명력을 잘 드러낸다. 철학과 신학을 하면서 끊임없이 성경본문과 충실히 씨름하는 하만이나 키르케고르의 모범을 소개해 줄 때의 감동도 좋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에 의한 보증에 의존하

게 해서는 안된다는 신칼뱅주의 기독교 철학의 '이성 없는 믿음' 입장이 왜 이성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신앙주의와는 다른지 보여주는 대목이나 '보증된 믿음' 개념의 5가지 핵심요소를 소개하는 대목도 참 좋다. 북미의 개혁주의 인식론이 영미의 경험론/합리론 전통에 선 인식론적 분석철학인 반면,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철학은 독일의 초월적 관념론 전통에서 있는 다른 유형의 철학이라는 분석도 명쾌하다. 무엇보다 월터스토프가 팔레스타인 인권과 동물권 보호에 헌신하는 대목은 모든 참된 지혜는 변혁적 차원을 갖는다는 크레이그 바로톨로뮤(Craig G. Bartholomew)의 강조점을 예시하는 좋은 사례로 들린다.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전통에서 있다고 천명하는 이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의 논리전개가 사랑에서 사랑으로 끝나듯, 월터스토프가 〈사랑과 정의〉를 저술했다는 정보도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기독교 세계관이나 기독교 철학을 논하는 개신교인들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더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으며, 떠오른 대학 시절의 추억이 있다. '기독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강의 내용들을 다 믿지 말고, 따져보라던 손봉호 교수님, IMF가 일어난 해 푸코(Michel Foucault) 책이 구내서점에서 대중잡지 같이 팔리던 장면, 성소수자 동아리의 커밍아웃, 쉐퍼(F. Schaeffer)와 제임스 사이어(James Sire)에 대한 독서토론, 위르겐 하버마스(J. Habermas), 김수환

〈그리스도인을 위한 서양철학 이야기〉 | 바르톨로뮤 & 고한 저 | 신국원 역 | IVP | 2019



추기경의 특강, 토마스주의와 칸트 사이를 오가던 가톨릭 신자 교수가 더는 인격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던 기억, 인문대학에서 〈무신론〉 교양과목을 수강했던 일 등.

“왜 이 시기 내게 이 책을 읽게 하셨을까?” 한 방향의 긴 순종’으로서 지성의 제자도를 걸어왔으나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나의 내적 구슬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제 꿰어 목걸이로 엮어주시려나 싶다. 또 내게 고민어린 질문을 던지던 문학과 교회청년에게 소개하거나, 교회 공부모임 교재로 추천할만한 책을 알려주셨다는 생각도 든다.

두 가지 질문이 독서를 마치며 떠올랐다. 배제와 혐오, 무능과 무책임, 정치적 분단구조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진영논리적 논의구조와 피아식별의 도구로 기독교 신앙이 소비되는 한국 기독교 상황에서, 기독교 철학 논의에 연관된 이들은 과연 기독교 철학의 필수적 속성인 선교적 속성을 잘 살려 오늘의 대한민국과 한반도, 동아시아의 사람들과 역사를 만나고 있을까? 사랑과 정의가 열씨안는 선교적 비전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철학 논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며 이 글을 쓴다. 두 저자는 또 다른 공저서인 〈세계관은 이야기다〉에서 부정의한 사회경제구조와 정치상황 안에서 무능하고 무관심했던 자신들의 교회 배경을 털어놓고 있음을 본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규칙서〉를 읽

으며, 아우구스티누스가 가르친 성경본문의 4중적 의미를 따라 ‘렉시오 디비나’(거룩한 독서)의 방식으로 기도하는 나에게 신칼뱅주의적 기독교 철학은 신비와 신성, 거룩이라는 주제들과 관련된 영성적 추구에 어떤 빛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크레이그 바르톨로뮤는 〈옴니〉를 해설하면서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중세 기독교 신비가를 인용하고, 칼 융(Carl Jung)을 끌어들여 성경본문을 해설하고 있는 것을 본다. 신칼뱅주의적 기독교 철학은 성령의 신학자인 칼뱅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FAITH & LIFE**

#### 글쓴이 김 욱



성공회대 조직신학(성서해석학) 박사과정 중이다. 서울대 윤리교육과 학부와 성공회대, 장신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조직신학과 영성신학을 공부했다. 서울대기독교인연합(서기연) 중앙위원단을 지냈고, 기독교세계관 학술동력회 정회원이다. 현재 길고양이 8마리와 함께, 편백나무, 음나무, 꾸지뽕나무 18000 그루를 키우며 산다. 경기도 하남시 길벗교회(기침) 전도사이다.

# 묵상하는 기적

정경식 (서울과기대 영어영문학과 3학년)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성경을 읽어라!”이다. 그리고 이 문장은 동시에 내가 만난 김기현 목사님의 생애도 요약한다. 이진경의 책 〈삶을 위한 철학 수업〉(문학동네, 2013) 130쪽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어느 건축가가 바우하우스의 총장이었던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를 사사했다. 나중에 그가 건축가로 활약하며 회상하기를, 미스는 그를 기억하지도 못했지만, 그는 미스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긴장하며 좋은 건축가가 되기 위해 공부했다는 것이다. 나에게 김기현 목사님은 미스 반 데어 로에 같은 분이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실 때, 목사님의 페이스북 글을 읽거나 카톡을 할 때면 “성경을 읽어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어쩐지 성경을 읽지 않은 사실이 생각나 부끄러움에 괜히 성경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을 소위 말하는 김기현 목사님의 인생작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나 공자의 〈논어〉와 같은 회대의 역작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목사님의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김기현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는지 증명하는 책이자 그 사랑을 참지 못해 터져 나오는 고백록처럼 읽었다. 다른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쓴 책. “성경을 읽어라”는 호소문을 300여 쪽에 걸쳐서 풀어놓은 책이다.

그렇다면 이 책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을까? 먼저 성경을 왜 묵상해야 하는지 동기를 부여하고(1부 묵상의 기초), 어떻게 묵상하는지 난이도 별로(초, 중급자), 상황 별로(목회자, 직장인) 구체적으로 알려준다(2부 묵상의 방법). 이에 그치지 않고 묵상을 적용, 기도, 나눔, 예배로 확장하고 지속하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며,(3부 묵상의 실천), 마지막으로 끝까지 우직하게 묵상을 놓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와 응원의 말을 남긴다(4부 묵상의 문제). 완독을 추천하지만 필요에 따라 자신이 묵상을 왜 해야겠는지 모르겠다면 1부를, 묵상하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모른다면 2부를, 묵상하지만 실천이 어렵다면 3부를, 묵상을 하다가 지친 상황에서 4부를 읽으면 좋을 듯하다.

예를 들어 나에게서 묵상의 이유를 찾을 1부가 필요했다. 직장인은 아니지만 바빠서 읽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또 부모님에게 권하고 싶어 2부의 ‘직장인을 위한 한 줄 묵상’을 읽어봤다. 그리고 교회에서라도 묵상 나눔을 잘해보려고 3부의 나눔을 집중해서 봤다. 4부는 묵상이 힘들어질 때 다시 읽으려고 개략적으로 읽으며, 나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 마음에 새겨두고 싶은 문장만 따로 밑줄 표시해놓았다.

그중 기억에 남는 것은 1부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줄줄 외웠습니다”(21쪽)라는 구절이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읽은 한 책 때문이다. 이마미치 도모노부의 〈단테 『신곡』 강의〉(안티쿠스, 2008)에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 | 김기현 저 | 성서유니온 | 2019



서 이마미치는 신곡을 읽기 전에 먼저 서양문화의 원류로서 호메로스를 읽고 넘어간다. 그러면서 그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각각 1만 5,693행, 1만 2,110행이나 되는데 문자로 기록되기 전에는 분명히 음유시인이 다 외워서 읊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게 도대체 가능한가 싶는데 다음 장에 그는 키릴 열도 인근에 거주하는 아이누 민족의 서사시 유카라를 기록한 긴다이치 교스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긴다이치는 녹음이 없이 낭송자의 말을 필사한다. 그렇게 한 명에게서 받아 적고 다른 부락으로 가서 또 다른 낭송자의 말도 받아 적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필사본을 비교해 보니 거의 차이가 없었다. 긴다이치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성경을 통째로 외운 것은 물론이고 그 성경 말씀에 따라 노예를 해방하고 빛 문서를 불태우는 실천까지 했으니 한국 교회 초기는 이런 기적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때가 아니었을까? 김기현 목사님이 소개하듯이 한국 초기 교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이유는 성경을 줄줄 외던 것에서 시작한다. 성경을 번역해 자녀에게 가르쳤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던 시기에 루터는 번역본 성경을 내놓는다. 루터 또한 “달달 외울 정도로 반복해 읽었고, “도저히 성경을 읽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루터는 성경에 쓰인 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19 쪽). 도대체 성경에 뭐가 있기에 이렇게 묵숨 걸고 외우고 읽었을까.

이 답이 궁금하다면 직접 경험해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다. 빛 문서를 태우는 책, 노예 문서를 태우는 책, 내가 불타 죽어도 읽고 번역해야만 했던 책. 이 책, 성경은 위험하다. 성경은 묵상하는 자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내가 바뀌기 때문이다. 내가 바뀌면 내가 보는 세상도 달라진다. 소설가 김연수가 “스무 살이 지나가고 나면, 스물한 살이 오는 것이 아니라 스무 살 이후가 온다”(〈스무 살〉(문학동네, 2015), 9쪽)고 썼던가. 그러면 성경을 읽은 나는 이렇게 외친다. “묵상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묵상 이후가 온다.” ‘일상’에서 ‘묵상 이후’로 넘어가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을 권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정경식

서울과학기술대 영어영문학과 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이다. 현재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 로고스서원(대표: 김기현 목사)에서 독서와 글쓰기 공부를 했으며 현재 로고스교회 청년이다.

## <기독교적 사회론>에 대하여

추천 : 웨슬리 Wentworth (Wesley Wentworth) 선교사

번역 소개 :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



<A Christian Theory of Social Institutions>(1986)은 네덜란드의 법학자이자 기독교철학자, 도이어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의 강연 모음집이다. 이 책은 총 120쪽이다. 하지만 맨 앞의 몇 장, 그리고 맨 뒤의 용어 설명과 색인을 빼면 본문은 100쪽이다. 그렇다고 만만히 볼 책은 아니다. 도이어베르트의 철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책의 편집자는 20쪽에 걸친 서론을 통해서 직접 도이어베르트의 학문적 발자취를 추적함으로써 그의 철학의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는 친절을 베풀었다. 뿐만 아니라 열 개의 강연에 대한 요약까지 실어주었으니, 이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이 눈물겹다. 편집자인 존 위티 주니어(John Witte, Jr.)는 탁월한 법학자이자 도이어베르트의 열렬한 팬이다. 그가 한국에 왔을 때 웨슬리 Wentworth(Wesley Wentworth, 1935~ ) 선교사의 소개로 잠깐 인사한 기억이 있다. 나머지 80쪽이 도이어베르트의 10회에 걸친 강의로 채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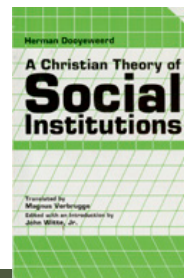
이 열 개의 강의는 1946-1947년, 두 해 동안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에서 행한 것이었다. 그것이 1947년에 '열 개의 사회학 강의'라는 무미건조한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그 책에 약간의 수정이 가해져서 1962년에 '철학적 사회학의 근본 문제들'이라는 조금 양념이 뿌려진 제목으로 재출판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

는 헤르만 도이어베르트 재단(Herman Dooyeweerd Foundations)에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여 1986년에 출판한 것이 이 책이다. 대가의 책들은 대개 이런 복잡한 경로를 거친다. 그들의 생각이 복잡하니 출판 과정도 복잡한 듯하다.

도이어베르트는 우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사물의 존재와 기능을 위한 일련의 규칙을 제정해 주셨다고 믿는다. 특별히 모든 것을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도이어베르트의 생각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만물은 종류대로 존재하게 되었고 각각의 종류에 적용되는 법칙이 주어졌다. 존재는 이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경험의 법칙이다. 우리가 무엇의 존재와 기능을 인식한다는 것은 거기에 일정한 법칙이 작용한다는 뜻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는 오직 혼란만이 있을 것이며,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 법칙에 대한 확신은 도이어베르트의 기독교적 신념 이면서 그의 분석 작업의 이론적 기초를 형성한다. 도이어베르트는 이렇게 법률, 정치 및 사회에 대한 현대의 이해에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기독교 가르침을 적용하고자하는 독창적인 기독교 사상이었다.

이 창조의 법칙을 밝혀내려는 연구의 결과 도이어베르트는 그것을 숫적 양상으로부터 종교적 양상에 이

〈A Christian Theory of Social Institutions〉 | 도이어베르트(Dooyeweerd) | Paideia Press Ltd. | 1986



르는 15개의 양상으로 정리했다. 여기서 말하는 양상은 구체적 사물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구체적 현실은 너무나 풍부하다. 우리는 그 속에서 생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이론적 관찰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 거기서 양상들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양상은 우리의 이론적 작업 속에서 대상이 인식되는 다양한 측면들이다. 도이어베르트는 이 양상들 각각의 성격과 기능, 그리고 양상들 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했다. 이것이 그가 사회의 분석틀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이론적 기초 작업이다. 필자가 보기에 칼스비크(L. Kalsbeek, 1903~)의 〈Contours of a Christian Philosophy〉(1975)는 가장 훌륭한 도이어베르트 철학 입문서 중의 하나이다.

성경적인 학문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도이어베르트는 이른바 자신의 ‘법 관념의 철학’을 발전시켰고 그것을 근거로 당시의 사회학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이 열 개의 강연이다. 그는 양상의 성격과 기능, 상호관계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사회 현상 이해에 적용했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들은 그 각각에 적용되는 창조의 법칙과 그것들이 상호 연결되는 규칙 하에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은 그 법칙에 따라서 사회를 구성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양상 이론에 의하면 사회의 어떤 한 분야가 절대화되어 다른 분야를 지배하는 일은 창조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다. 사

실 이 생각의 씨앗은 흐룬 반 프린스터러(Groen Van Prinsterer, 1801-1870)가 뿌렸고,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가 발전시켰으며, 도이어베르트가 이론적으로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상이 유럽의 기독교 민주당에 끼친 영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것은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이 사상의 사회적 결과가 ‘기둥화’(pillarization)로 알려져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이다.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다가, 영국에 유학하여, 서레이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에서 '에베소서 5:22-33' 연구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에스라성경대학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등에서 강의했고, 지금은 목회와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이 비밀이 코드다〉(IVP), 〈겸손〉(IVP), 〈구원과 윤리〉(대장간), 〈성령과 윤리〉(생명의말씀사) 외 다수가 있다.

# 삼일결혼예비학교(Samil Premarital Academy)

## — 삼일교회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

유희성 (삼일결혼예비학교 담당목사)

서울 청과로에 위치한 삼일교회(송태근 담임목사)는 전체 성도의 80%가 청년으로 이루어진 젊은 교회이다.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결혼하는 커플들이 있고, 매해 수백 쌍의 부부들이 탄생한다. 결혼은 청년들이 가진 삶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 중 하나이다. 이에 삼일교회는 결혼에 대하여 함께 기독교적으로 고민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 운영 중이다.

삼일결혼예비학교(SPA)는 예비부부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가정을 세워 가는데 필요한 성경의 진리와 실질적 지혜를 교육하기 위하여 삼일교회 가정사역원이 준비한 결혼 예비교육이다. 결혼 준비 과정뿐 아니라 실제 결혼 생활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는 삼일결혼예비학교의 특징은 ‘영성’(Leaving home), ‘지성’(Being married), ‘실용성’(Home living)이다.

첫째, 삼일결혼예비학교는 ‘영성’(Leaving home)을 추구한다. ‘영성’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본 가정의 기원과 목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경은 남녀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임을 인식하고, 부모와 과거로부터 건강하게 독립하여,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함을 가르친다. 본 학교에서는 개인의 안정과 행복만을 결혼의 유일한 목적으로 여기게 하는 세속적 세계관을 거슬러 가정의 신적 기원과 목적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둘째, ‘지성’(Being married)은 결혼생활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에 관한 부분이다. 대다수의 신혼가정은 관계적으로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 이는 그저 부부 둘 사이의 갈등을 넘어 두 원가정의 갈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제는 복잡하고 그만큼 해결도 어렵다. 삼일결혼예비학교는 신혼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의 원인과 양상 그리고 해결과 성숙한 대처를 성경적 원리에 의거하여 가르친다.

셋째, ‘실용성’(Home living)’은 실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정보와 선택에 관한 부분이다. 인터넷 상에 결혼 관련 정보는 넘쳐나지만 무엇이 유익한 정보인지, 또한 무엇이 성경적 세계관과 부합하는지를 분별하기는 쉽지 않다. 삼일결혼예비학교에서는 혼수, 임신, 부부싸움, 가정예배, 임종 등을 모의체험하며 실제적인 부분을 배울 수 있다.





## 성경적 가정 세움을 위한 축복의 마중물



삼일교회에서 진행하는 '결혼예비학교'라는 프로그램은 교회에 청년들이 많아서인지, 매우 관심과 호감도가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은 물론이고, 결혼을 한 분들도 수업 내용을 궁금해 하기도 한다. '결혼예비학교' 수업을 듣기 전 아직 미혼이었던 나 또한 그랬다.

시간이 지나고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 연애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 '결혼예비학교' 수업을 듣자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상황 상 결혼 준비를 한 달 만에 하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결혼 후 두 달이 지나 '결혼예비학교' 수업을 듣게 되었다.

수업을 듣고 나니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많았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는 것, 하나 됨, 잘 싸우는 법, 언약적 관계 등 정말 결혼의 A부터 Z까지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가정을 세우는데 밑바탕을 탄탄히 채워갈 수 있는 유익한 값이 가득한 수업이었다.

우리는 결혼한 후에 듣게 된 수업이라, 서로 같이 살면서 현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부분들이 많아서 더 좋았던 것 같다.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실전이 있어서 그만큼 수업내용들이 피부 가까이 느껴졌다.

'결혼예비학교'는 결혼을 하고 수업을 듣는 것도 유익하고, 결혼 전에 수업을 듣는 것도 미리 예방과 계획을 세워갈 수 있기에 유익하다. 결혼 전이든지 후든지 새롭게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려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고 싶다. 결혼해 보니 맞춰가야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긴다. 수업을 듣기 전에는, 그냥 막연하지만 배우자를 사랑해서 서로 맞춰갈 수 있었다면, 수업을 듣고 나서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왜 맞춰가야 하는지 이해하면서 배우자를 알아갈 수 있는 것 같다.

남편과 나는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세상 결혼과 반드시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요즘 시대엔 더욱 그렇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르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자세히 모르고, 정확한 방향을 알고 싶어서 '결혼예비학교'를 신청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나, 남편 그리고 우리이지만 잊혀 질 때면 '결혼예비학교' 책을 다시 꺼내서 찾아본다. 그리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신혼생활을 지금도 해 가고 있는 중이다.

### 글쓴이 하나리

삼일교회 성도이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회적기업 '모아 스토리'에 다니고 있다. 서울 용산구 소재의 삼일교회 청장녀이며 같이 산지 5개월 된 남편과 함께 선교사 훈련 준비 중에 있다.



##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2020년 이사회(1차, 2차) 개최

- 1차 이사회 : 1월 20일 (월) 오후 6:30 / 서울역 ktx 공항터미널 지하 2층 [명가의 딸]
  - 참석 : 손봉호, 김승욱, 신국원, 유재봉, 조성표, 장수영, (감사: 박문식, 실행위원장: 박동열)
  - 안건 : 정관개정안, 임기만료 임원 심의 및 신규임원 후보 추천, 2019 결산 및 2020년 사업 심의
- 2차 이사회 : 2월 21일(금) 오후 4:00 / 상암동 ES 타워 8층 회의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58길 9)
  - 참석 : 손봉호, 신국원, 유재봉, 양승훈, 조성표, 장수영 (감사: 박문식, 최현일)
  - 안건 : 신규임원 후보에 대한 실행위원회 추천안 심의, 2019 결산 및 2020년 예산(사업) 심의

##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2020년 정기총회 개최

일시 : 2020년 2월 21일(금) 저녁 6:00

장소 : 서울 상암동 ES 타워 8층 회의실 (2020년 총회 대의원 30명 중 18명 참석)

임기만료 임원(이사, 감사) 연임 및 후임 선거(투표) 결과 :

김성수 이사 (전 고신대 총장, ~2020.1.8) 후임 => 최태연 신임 이사 (백석대 교수, ~2022.4.1.) 선출  
 김승욱 이사 (중앙대 교수, ~2020.4.16) 후임 => 박영주 신임 이사 (前 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장) 선출  
 박문식 감사 (한남대 교수, ~2020.7.3.) 후임 => 김미영 신임 감사 (한국소토 대표) 선출  
 손봉호 이사, 신국원 이사, 유재봉 이사, 정희영 이사 (이상 4인 연임 확정, 2020.4.17~2024.4.16)

## 실행위원회 개최

일시 : 2020년 2월 14일(금) 오후 7:30 / 장소 : 상암동 ES빌딩 8층 회의실

참석 : 박동열, 강진구, 김대인, 김미영, 김성경, 김지원, 김혜정, 박진규, (사무국장: 석종준)

## 2020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일시 : 2020년 5월 23일(토), 오전 10:00~ 오후 6:00 / 장소 : 국립목포대학교

## 2020년 신규 후원교회

분당우리 (이찬수 목사), 김천 더세움 (정통령 목사), 예수향남 (정갑신 목사), 종암제일 (이상현 목사), 의정부 광명 (최남수 목사), 런던 갈보리 (윤성현 목사) \* 귀한 후원과 동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2020년 조직 및 임원

### 사단법인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이 사 박영주 (前 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양승훈 (VIEW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홍명식 (사카나야 대표), 최태연 (백석대 교수)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박문식(한남대 교수) 최현일(샘병원 의사)

###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행위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김미영(한국소토 대표) 김성경(VIEW 실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재완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 김혜정 (CUP대표) 문준호(디오스텍 부장)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진규(서울여대 교수) 송태현(이화여대 교수) 이상민(서울국제교사) 이재희(가천대 교수) 유경상(CTC대표)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최용준(한동대 교수)

###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박문식(한남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총무 오민용(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감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편집위원장 송태현 (이화여대 교수, 불문학 \*)

편집위원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로스쿨), 김종훈(성신여대 교수, 교육학), 김철수 (조선대 교수, 영문학 \*), 신웅철 (동아대 교수, 서양철학 \*), 우중학 (서울대 교수, 물리천문학),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교육철학 \*), 임춘택 (제주대 교수, 독문학 \*), 엄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 현은자 (성균관대 교수, 아동청소년학), 현창기 (한동대 교수, 생명과학), 황혜원 (청주대, 사회복지학), Lim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교수, 신학)

(\* 는 신임위원)



## VIEW(전성민 원장)

- VIEW (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 / 졸업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Graduate Diploma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 / 졸업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사람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위의 두 과정을 수강하고 졸업할 수 있다.

## CTC(유경상 대표)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는 3월부터 두 가지 온라인 세계관 교육 과정을 포함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 온라인 기독교세계관 교육 강사 '기본 과정' : 가정,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을 시작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세계관 강사 양성을 위한 전문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 온라인 월드뷰 패밀리아카데미 :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인문고전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부모가 먼저 배워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를 기독교세계관으로 양육하는 교육 공동체로 형성시키는 다양한 세미나와 캠프를 진행할 계획이다.
- 교회 사역 : 1) 3월부터 충주 '함께하는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마다 여는 어린이세계관학교 '하나님, 미디어가 뭐예요?' 지도자 교육과 청소년세계관학교 '나니아로 떠나는 기독교세계관 여행' 지도자 교육을 진행한다. 2) 삼일교회, 요한서울교회에서 어린이세계관학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어요' 지도자 교육과 어린이세계관학교를 개강한다. 3) 제자들교회(담임 문태언 목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부모교사세계관학교와 어린이세계관학교도 시작한다..
- 캠퍼스 사역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세계관' 수업과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나니아로 떠나는 기독교세계관 여행 - 말과 소년, 사자와 마녀와 옷장'을 개강한다.

\*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다음세대 세우기'를 목표로 하는 CTC 사역에 동역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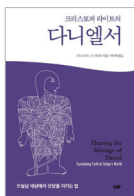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CUP는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며, 더불어 꿈꾸고 소통하며 성경적 비전을 확장시키는 나눔터의 출판을 꿈꾼다.

www.cupbooks.com 문의 : 02-745-7231, cupmanse@gmail.com

### - 신간 소식

####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다니엘서 강해>(크리스토퍼 라이트 지음 | 박세혁 옮김 | 2020)



#### 오늘날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법

탁월한 구약학자이며 성서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성경과 현재의 삶을 넘나드는 분석과 적용을 통해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와 방향을 배울 수 있다.

#### <어린이 교육 전문가가 엄선한 100권의 그림책>(현은자 외 6인 지음 | 2019)



#### 제36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신앙일반 (국내부문 최우수도서로 선정)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린이 교육과 그림책을 연구하는 현은자 교수(성균관대) 등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공동저작으로 몇 년 간의 그림책 연구 모임의 결실로 만들어진 책이다.

그림책은 어린아이들이 처음으로 세상을 보는 창. 책에 대한 숨은 의미, 뒷이야기,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최고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9년 12월, 2020년 1월결산)

| 수입 항목   | 세부 항목     | 2019년 12월  | 2020년 1월   | 지출 항목    | 세부 항목     | 2019년 12월  | 2020년 1월    |
|---------|-----------|------------|------------|----------|-----------|------------|-------------|
| 경상수입    | 이사회비      | 300,000    | 300,000    | 인건비      | 일반급여      | 5,780,000  | 4,280,000   |
|         | 임원회비      | 540,000    | 680,000    |          | 기타급여      | 400,000    | 400,000     |
|         | 일반회비      | 4,545,000  | 4,495,000  |          | 소계        | 6,180,000  | 5,280,000   |
|         | 기관후원금     | 2,700,000  | 2,450,000  | 경상비      | 사무실임대료    | 2,000,000  | 2,000,000   |
|         | 사무실후원금    | 0          | 0          |          | 통신비       | 251,550    | 115,710     |
|         | CTC후원금    | 80,000     | 70,000     |          | 우편료       | 21,950     | 48,830      |
|         | VIEW후원금   | 1,850,000  | 1,030,000  |          | 소모품비      | 0          | 0           |
|         | ES후원금     | 2,000,000  | 1,030,000  |          | 비품        | 0          | 0           |
|         | 월보구독료     | 431,500    | 486,500    |          | 수선비       | 0          | 0           |
|         | 학술지원금     | 0          | 0          |          | 복리후생비     | 697,710    | 590,530     |
|         | 세계관사역지원금  | 0          | 0          |          | 퇴직연금      | 0          | 4,550,683   |
|         | 기타        | 600,000    | 630,000    |          |           |            | 0           |
|         |           |            |            |          |           |            | 0           |
|         |           |            |            |          | 회의비       | 14,520     | 205,000     |
|         |           |            |            |          | 회계용역비     | 220,000    | 220,000     |
|         | 소계        | 13,046,500 | 12,141,500 |          | 여비교통비     | 110,000    | 110,000     |
| 기타수입    | 일반이자      | 14,549     | 0          | 연구지원비    | CTC후원금    | 88,900     | 78,900      |
|         | 법인이자      | 0          | 0          |          | VIEW후원금   | 2,051,750  | 832,025     |
|         | 법인세환급금    | 0          | 0          |          | 소계        | 2,140,650  | 910,925     |
|         | 기타수입      | 0          | 0          | 출판(회지)   | 인쇄비       | 5,046,800  | 330,000     |
|         | CUP매각대금   | 400,000    | 400,000    |          | 발송비       | 495,000    | 1,014,050   |
|         | 결산이자      | 0          | 0          |          | 소계        | 5,541,800  | 1,344,050   |
|         | 예수금       | 302,320    | 375,870    | 기타       | CUP기금적립   | 400,000    | 400,000     |
|         |           |            |            |          | 세금        | 0          | 50,980      |
|         | 소계        | 716,869    | 775,870    |          | 잡비        | 9,400      | 8,400       |
| 세계관일반등록 | 세계관일반등록   | 2,970,000  | 1,590,000  |          | 소계        | 409,400    | 459,380     |
|         | 세계관기타수입   |            | 0          | 세계관 아카데미 | 세계관강사료    | 0          | 1,520,000   |
|         |           |            |            |          | 세계관행사준비   | 161,590    | 2,768,910   |
|         | 소계        | 2,970,000  | 1,590,000  |          | 세계관기타     | 0          | 300,000     |
| 학회      | 학회이사회비    | 100,000    | 220,000    |          | 소계        | 161,590    | 4,588,910   |
|         | 학회행사수입    | 0          | 0          | 학회       | 학회강사료     | 0          | 0           |
|         | 자료집판매     | 0          | 0          |          | 학회장소사용료   | 0          | 0           |
|         | 학회지판매     | 0          | 0          |          | 학회자료제작비   | 0          | 0           |
|         | 학술지심사비    | 140,000    | 420,000    |          | 학회홍보및기타   | 0          | 0           |
|         | 학술지게재료    | 3,062,500  | 0          |          | 학술지인쇄비    | 3,036,000  | 0           |
|         | 저작권료      | 0          | 0          |          | 학술지발송비    | 0          | 794,010     |
|         | 학회기타수입    | 0          | 0          |          | 학술지심사료    | 1,160,000  | 0           |
|         |           |            |            |          | 학회조교비     | 0          | 0           |
|         | 소계        | 3,302,500  | 640,000    |          | 소계        | 4,196,000  | 794,010     |
| 전월 미수금  | 전월 CMS 입금 | 1,077,356  | 875,950    | 차월이월 수입금 | 이달 CMS미수금 | 875,950    | 832,995     |
|         | 전월 이니시스입금 | 0          | 0          |          | 이달이니시스미수금 | 117,360    | 60,000      |
|         | 소계        | 1,077,356  | 875,950    |          | 소계        | 993,310    | 892,995     |
| 당월 수입액  |           | 21,113,225 | 16,023,320 | 당월 지출액   |           | 23,217,000 | 70,456,973  |
| 전월 이월액  |           | 25,645,548 | 23,541,773 | 차월 이월액   |           | 25,495,079 | -30,891,880 |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 CMS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회원후원

(2019년 12월)

3천 김성권, 3천5백 광도명, 김봉현, 김새별, 김새별, 김성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명의강, 손영일, 윤정, 이지연,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웅,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웅,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영윤, 김정명, 김정성, 김태영, 김해창, 노승욱, 박승룡, 박천규, 범경철, 손영경, 송시섭, 유충열,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길규, 이길수, 이노운, 이택재, 이민화, 이수인, 이종혁, 이항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광학, 정진우, 조은아,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5백 강찬진, 김동현, 김지현, 박상균, 박성태, 방선기, 백예은, 이경우, 이윤택,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민창, 강연정, 강은정, 고길현, 고선욱, 고용재, 고현정, 박정임,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호, 김경화,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남중, 김남진, 김노우, 김도형, 김동연, 김막미, 김민경,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보경,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상일, 김성경,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성호, 김세령, 김세준, 김수빈, 김수진, 김승진,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규, 김영숙, 김영호, 김용국, 김용석, 김윤곤, 김은덕, 김은정, 김은태, 김재원, 김재정, 김경모, 김정일, 김경준, 김경호, 김종원, 김종일, 김재남, 김주영, 김지곤, 김진수, 김진호, 김진희,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숙, 김현정, 김해정, 김해정, 김홍섭, 남선우, 노순석, 라영환, 류은정, 류지호, 류진호, 류현호,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박계호, 박능안, 박동현, 박복애, 박승호, 박시운, 박영주, 박원근, 박은주, 박주현,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해경,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변우진,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호행,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영규, 손진영,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충철, 송철호, 송태상, 송현미, 신경규, 신상형, 신성만, 신진호, 신현우,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재훈, 안남주, 안병일, 안석, 안성희, 양성건, 양성철, 양행모, 양해영, 양혜원, 양희석, 엄준용, 연혜민, 엄동한, 오민용, 오성호,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지환, 유지상,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재림, 윤지혜,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권철, 이길형,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상수, 이상순, 이상환,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성수, 이상실, 이세정, 이수연, 이수인, 이순진, 이승열, 이시영, 이언규, 이연경, 이연희, 이영미, 이요한, 이윤환, 이원도, 이원재,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은미,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욱, 이정일, 이종철, 이종선, 이지연, 이진희, 이춘성, 이혜리, 이형로, 이현일,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일택, 임재광,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재,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국,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정경미, 정경식, 정다은,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성지, 정용수, 정은희, 정이래, 정재현, 정정숙, 정현구,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승호,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창현, 조창희, 조현용, 조현지, 조혜경, 조혜선, 지의정, 차몽준, 채일, 채희석,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연우, 최영, 최은정, 최종민, 최한빈, 최해경, 추진연,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홍구화, 홍대하, 홍정석, 홍종인,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인경, 황혜수, 1만5천 김선화, 박정호, 정상섭, 2만 David Han, 강용란, 강혜영, 김기현, 김용식, 김민수, 김정옥, 김정호, 박기모, 박홍식, 배성민, 백은석,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기, 이기서, 정동섭, 정훈, 채기현, 최현식, 허정도, 황혜정,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김태진, 문석윤,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오의석, 이근호, 이은실, 임희옥, 전병국, 정민, 최용준, 추태하, 황영철, 황정진, 4만 심은희, 우병훈, 5만 김중우, 김택호, 박정심, 서진희, 양승훈, 윤석찬, 이대경, 이상민, 정은애, 한윤식, 6만 석종준, 한수정, 허계형, 7만 박문식, 최태연, 10만 송봉호, 신국원, 윤완철, 이원삼, 장수영, 정정연, 최현일, 12만 현창기, 136만 김민철,

계 7,781,500원

## 기관후원

5만 개봉교회, 고양제일교회, 다온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마포중앙교회, 새길침례교회, 서로사랑교회 10만 강남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침빛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나교회, 새인약교회, 신석교회, 예수교회, 종교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한돌교회, 20만 바울교회, 삼일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200만 ㈜이상네트웍스

계 4,750,000원

전체 12,531,500원

## 회원후원

(2020년 1월)

3천 김성권, 3천5백 광도명, 김봉현, 김새별, 김새별, 김성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명의강, 손영일, 윤정, 이지연,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웅,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웅,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영윤, 김정명, 김정성, 김태영, 김해창, 노승욱, 박승룡, 박천규, 범경철, 손영경, 송시섭, 유충열,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길규, 이길수, 이노운, 이택재, 이민화, 이수인, 이은미, 이인수, 이종혁, 이항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광학, 정진우, 조은아,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5백 강찬진, 김동현, 김지현, 박상균, 박성태, 방선기, 백예은, 이경우, 이윤택,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David Han, 기용길, 강민창, 강연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선욱, 고세일, 고용재, 고현정, 박정임, 권경호, 김원평, 김경호, 김경화,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남중, 김남진, 김노우, 김도형, 김동연, 김막미, 김민경,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보경,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상일, 김성경,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성호, 김세령, 김세준, 김수빈, 김수진, 김승진,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규, 김영숙, 김영호, 김용국, 김용석, 김윤곤, 김은덕, 김은정, 김은태, 김재원, 김재정, 김경모, 김정일, 김경준, 김경호, 김종원, 김종일, 김재남, 김주영, 김지곤, 김진수, 김진호, 김진희,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숙, 김현정, 김해정, 김해정, 김홍섭, 남선우, 노순석, 라영환, 류은정, 류지호, 류진호, 류현호, 모상근, 모아론, 박계호, 박광재, 박나리, 박능안, 박동현, 박복애, 박승호, 박시운, 박영주, 박원근, 박은주, 박주현,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해경,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변우진,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호행,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영규, 손진영,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충철, 송철호, 송태상, 송현미, 신경규, 신상형, 신성만, 신진호, 신현우,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재훈, 안남주, 안병일, 안석, 안성희, 양성건, 양성철, 양행모, 양해영, 양혜원, 양희석, 연혜민, 엄동한, 오민용, 오성호,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지환, 유지상, 유해무, 유화원,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지혜,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길형,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상수, 이상순, 이상환,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성수, 이상실, 이세정, 이수연, 이수인, 이승열, 이시영, 이언규, 이연경, 이연희, 이영미, 이요한, 이윤환, 이원도, 이원재,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은미,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욱, 이정일, 이종철, 이종선, 이지연, 이진희, 이춘성, 이혜리, 이형로, 이현일,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일택, 임재광, 임지연, 장경근, 장슬기, 장승재,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국,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병국, 전성규, 정경미, 정경식, 정다은,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성지, 정용수, 정은희, 정이래, 정재현, 정정숙, 정현구,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승호,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창현, 조창희, 조현용, 조현지, 조혜경, 조혜선, 지의정, 차몽준, 채일, 채희석,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연우, 최영, 최은정, 최종민, 최한빈, 최해경, 추진연,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홍구화, 홍대하, 홍정석, 홍종인,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혜수, 1만5천 김선화, 박정호, 정상섭, 2만 강용란, 김기현, 김용식, 김정옥, 김정호, 김효숙, 문재환, 박기모, 박홍식, 박홍식, 배성민, 심은희, 안선자, 엄준용,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기, 이기서, 이봉근, 이창우, 정동섭, 정훈, 채기현, 최현식, 허정도, 황혜정, 3만 김경민, 김방룡, 김태진, 문석윤,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오의석, 이은실, 임희옥, 정민, 최용준, 추태하, 황영철, 황정진, 4만 송찬호, 우병훈, 5만 김중우, 김택호, 박정심, 박성현, 서진희, 양승훈, 윤석찬, 이대경, 이상민, 정은애, 한윤식, 6만 석종준, 한수정, 허계형, 7만 박문식, 최태연, 10만 김태환, 송봉호, 신국원, 윤완철, 이원삼, 장수영, 정정연, 최현일, 12만 홍승현, 20만 손정엽, 30만 박동열,

계 7,171,500원

## 기관후원

5만 개봉교회, 고양제일교회, 광명교회, 다온공동체교회, 마포중앙교회, 서로사랑교회, 6만 총신대학교도서관, 10만 강남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나교회, 서울영동교회, 신석교회, 예수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한돌교회, 20만 바울교회, 삼일교회, 성덕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200만 ㈜이상네트웍스,

계 4,750,000원

전체 11,731,5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편집위원 소개

|       |     |                                                  |
|-------|-----|--------------------------------------------------|
| 발행인   | 손봉호 | 고신대 석좌교수, 이사장                                    |
| 편집장   | 신국원 |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                                     |
| 편집위원  | 김대인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
|       | 김유준 |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겸임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
|       | 문준호 | (주)렘퍼스 이사,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
|       | 박동열 |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
|       | 박영주 | 前 수원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장,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정회원 |
|       | 박진규 |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
|       | 박흥식 |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겐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위원장     |
|       | 석종준 |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사무국장                 |
|       | 양성만 |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정회원                      |
|       | 윤현준 | 서울대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
|       | 이병주 | 기독교법률가회(CLF) 사무국장, 변호사, 하바드대 로스쿨 석사              |
|       | 이상민 | 서울국제고 교사,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
|       | 장수영 |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
|       | 전명희 |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
|       | 조성표 |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
|       | 최태연 |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정회원                    |
|       | 최현일 |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감사                             |
|       | 추태화 | 안양대 교수,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
|       | 황영철 |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셔리대 Ph. D, 정회원            |
| 편집실무자 | 석종준 | 사무국장                                             |
|       | 윤지혜 | 간사                                               |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유준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박흥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 [info@worldview.or.kr](mailto: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



|      |      |
|------|------|
| 성명   | 생년월일 |
| 휴대전화 | 이메일  |
| 주소   |      |

|      |                                      |                              |                                   |                                             |                                                   |
|------|--------------------------------------|------------------------------|-----------------------------------|---------------------------------------------|---------------------------------------------------|
| 후원금액 | <input type="checkbox"/> 1만원         | <input type="checkbox"/> 2만원 | <input type="checkbox"/> 3만원      | <input type="checkbox"/> 5만원                |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
| 후원방법 | <input type="checkbox"/> 매월 CMS 자동이체 |                              | <input type="checkbox"/> 매월 직접 입금 | <input type="checkbox"/>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                                                   |

|                      |                       |
|----------------------|-----------------------|
| 신청자                  | 이체일    □ 25일    □ 30일 |
| 예금주와의 관계             | 예금주 휴대전화              |
| 은행명                  | 계좌번호                  |
|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                       |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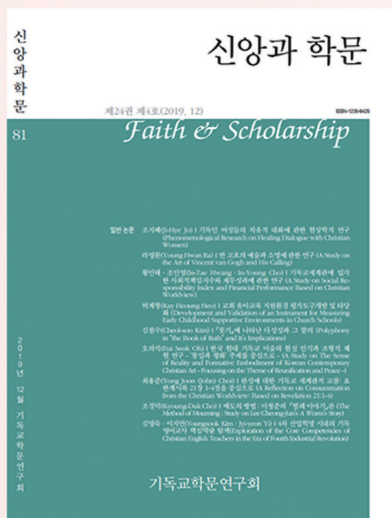
(인) 또는 서명

자세한 후원정보를 기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전화해주십시오. 사무국 : 02) 754-8004

# 〈신앙과 학문〉

## 논문 투고 안내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1996년 이래 발행하고 있으며, ‘신앙과 일반학문’의 통섭을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등재학술지입니다.
-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 매 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합니다(투고 마감시한은 각호 발행일 45일전).



- \* 상세안내 :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 ‘학회’ 항목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람.
- \* 일반문의 : [gihakyun@daum.net](mailto:gihakyun@daum.net) (02-3272-4967, 사무국, 학회)
- \* 〈신앙과 학문〉 문의 : [faithscholar@naver.com](mailto:faithscholar@naver.com) (투고, 심사 사항)
- \* 2014년 개정된 투고규정을 꼭 참고하십시오.
-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
- \* 논문유사도 검사 서비스 : <https://check.kci.go.kr/>

기독교학문연구회